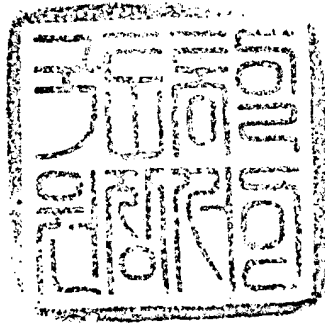


3254
320.911

南北韓 經濟現況 比較



기타

남북한 비교
남북한 경제 비교
한국 경제
북한 "

國 土 統 一 院

1000-10-85 2-27-85

1000-10-85 2-27-85

目 次

I. 南北韓 經濟比較의 意義와 接近方法	5
1. 南北韓 經濟比較의 意義	5
2. 南北韓 經濟의 比較基準	6
가. 比較 分析上의 制約條件	6
나. 比較를 위한 接近方法	8
II. 南北韓 經濟의 本質	9
1. 經濟体制의 比較	9
가. 私的 所有制度和 社會的 所有制度	9
나. 市場經濟体制와 計劃經濟体制	10
다. 開放經濟와 閉鎖經濟	12
2.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比較	14
III. 南北韓 經濟開發의 成果 比較	17
1. 分斷 直後의 産業與件	17
2. 6.25動亂과 戰後 産業復舊	19
3. 經濟的 成果	21
가. 産業開發計劃과 그 成果	21

나. 産業部門間的 構造	26
다. 南北韓 GNP 增加推移 比較	29
IV. 主要 部門別 現況 比較	32
① 總量 部門	32
가. 人口 및 領土	32
나. 國民總生產	34
2. 財 政	35
가. 南北韓 財政制度의 特徵	35
나. 歲 出	36
다. 歲 入	38
3. 農水 産業	40
가. 農業構造의 比較	40
나. 農業生產의 基盤	42
다. 食糧作物 生產	45
라. 畜産業 實態	47
마. 水産業 實態	48
4. 鑛 工 業	50
가. 政策目標 및 工業化 戰略	50
나. 鑛工業資源과 에너지	51
다. 重化學工業	56
1) 鐵鋼 및 非鐵金屬工業	56
2) 機械工業	58

3) 化學工業	60
라. 輕 工 業	62
마. 技 術 水 準	64
5. 輸送·通信	65
6. 對 外 去 來	68
가. 貿 易 規 模	68
나. 貿 易 構 造	71
7. 住 民 生 活 水 準	73
⑤ 南 北 韓 經 濟 成 長 展 望	76
1. 南 北 韓 經 濟 的 強 弱 點	76
가. 韓 國	76
나. 北 韓	77
2. 展 望 과 結 論	79
가. 對 內 外 的 經 濟 環 境	79
나. 韓 國 經 濟 社 會 發 展 展 望	81
다. 北 韓 經 濟 體 制 的 變 化	82

I. 南北韓 經濟比較의 意義와 接近方法

1. 南北韓 經濟比較의 意義

1945年 光復과 함께 始發된 祖國의 分斷으로 인해 南韓과 北韓은 서로 다른 理念과 經濟體制를 形成하여 相互 排他的이며 競爭的인 經濟發展을 追求해 왔다.

이러한 南北韓間의 對立은 비단 南北韓 當事者間의 次元을 넘어서 自由世界와 共產主義 諸國間의 對決場으로 浮刻되어 어느 體制가 合理的이고 理想的인가를 判斷하는 尺度가 되고 있다. 특히 兩體制를 比較하는데 여러가지의 方法과 基準이 있겠으나 한 國家가 追求하는 窮極的인 目標가 國民을 自由롭고 幸福하게 살게 하는데 있다면 經濟力量의 比較評價는 매우 主要한 基本指標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時點을 基準하여 南北韓間에 分斷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追求해 왔던 經濟發展의 決果를 客觀的인 經濟指標를 통해 比較하고 또 이러한 結果를 가져오게 한 根本原因이 어디에 있으며, 各各은 어떠한 長點과 脆弱點을 가지고 있는가를 評價하고 未來를 展望한다는 것은 큰 意義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南北韓의 經濟比較를 통하여 直視된 分斷狀況下의 經濟現實은 “民族和合 民主統一 方案”에 따른 南北韓의 諸般 經濟交流나 協力の 指針을 提供하고 平和的으로 統一된 祖國이 持向해야 할 國民의 自由와 福祉增進을 保障할 수 있는 發展的인 經濟體制와 秩序를 摸索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 南北韓 經濟의 比較基準

가. 比較 分析上의 制約條件

南北韓의 經濟實狀을 比較하는 것은 北韓의 經濟體制가 自由 資本主義 經濟體制와는 根本的으로 그 本質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點이 많다.

첫째는 經濟體制의 相異에서 惹起되는 問題點으로, 北韓의 經濟秩序를 理解하고 南北韓의 經濟力量을 比較함에 있어서 民間經濟部門이 거의 存在하지 않는 北韓의 經濟體制를 單純히 資本主義的 視角만으로 分析한다면 誤謬를 범하기 쉽다. 北韓을 包含하여 대개의 共產主義 國家들은 私有財産을 否定하고 있어서 財産 및 生産手段의 所有形態는 물론 流通秩序도 自由 資本主義 國家와는 크게 다른 實情에 있다. 이렇게 流通秩序가 다르므로 해서 流通過程에서 作用하는 貨幣의 機能도 역시 兩體制間에는 서로 다르기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共產主義諸國의 通貨에 대한 換率의 適用問題(equilibrium of foreign exchange rate)가 그들의 經濟問題를 分析하는데 또 하나의 어려운 問題點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北韓에서 使用하는 經濟用語나 概念이 自由 市場經濟體制에서 通常的으로 使用하는 經濟用語와 그 概念을 달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생기는 問題點이다. 北韓과 같은 社會主義 國家에서 使用하는 國民所得의 概念은 資本主義 經濟에서 一般的으로 使用하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면 韓國과 같은 資本主義 經濟에서는 一定期間에 國民經濟가 生産에 의해 새로 追加된 財貨 및 用役의 附加價值 合計를 나타내는 國

民總生産(GNP : Gross National Product)을 使用하고 있는데 반하여 北韓을 包含한 社會主義 經濟에서는 이에 對應하는 概念으로 社會總生産(GSP : Gross Social Product)이라는 概念을 使用하고 있다는 것을 指摘할 수 있다.

社會總生産이란 一定期間에 社會主義 經濟(資本主義 國民經濟와 類似)에서 創出된 財貨의 單純 總生産高를 말하며 여기에는 資本主義의 서어비스(用役) 部門은 計算되지 않고 있으나 中間生産物의 二重計算은 除外되지 않고 있다.

세째, 北韓에서 使用하고 있는 經濟統計의 單位가 韓國이 通常적으로 使用하는 單位와 서로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南北韓의 經濟統計를 同一 基準에서 比較하기 위해서는 技術的인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北韓에서는 織物의 生産量을 表示할 때 單純하게 미터法에 의한 길이로만 表示하고 幅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正確한 生産量을 알기란 매우 어려운 實情이고 化學肥料 生産量은 單純히 物量基準으로, 精油能力은 무게單位로 發表하여 比較上에 많은 制約을 주고 있다는 것을 指摘할 수 있다.

네째, 南北韓間에는 產業構造와 消費패턴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에너지의 主種을 石炭에 依存하고 있는 北韓의 에너지 供給構造를 精油量이나 油類 消費量을 통해서만 分析하려 한다면 큰 誤謬를 범하게 될 것이고, 石炭化學工業에 依存하는 北韓工業構造를 石油化學工業의 視角에서 把握하려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끝으로 南北韓의 經濟力量을 比較하는데는 資料의 貧困이 큰 問題가 된다.

閉鎖體制를 維持하고 있는 北韓에서는 1965년부터 經濟統計를 一體 發表하지 않고 있으며, 간혹 金日成의 新年辭, 豫算決算報告書, 經濟

計劃報告書 및 各種 行事的 報告書에 나오는 斷片的인 몇개의 統計値가 北韓이 發表하는 經濟統計의 全部인데 그것도 大部分이 統計가 發表되지 아니한 一定年度를 基準으로 한 指倍數로 發表하므로 時系列이 缺如됨은 물론 實績의 誇張宣傳을 目的으로 하고 있어서 北韓 經濟分析에 커다란 障礙要因이 되고 있다.

나. 比較를 위한 接近方法

前述한 바와같이 南北韓의 經濟構造나 實態를 比較 研究하는데 있어서 直面하는 어려움은 異質的인 體制에서 오는 經濟行爲의 差異, 用語 및 概念의 相異問題, 그리고 正確한 統計의 未發表 및 統計의 信憑性의 稀薄 등이다.

本 研究에 있어서도 이로 말미암아 比較에 相當한 制約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比較研究에 있어서는 個個 統計數値의 羅列을 통한 單純한 比較보다는 그 本質的 差異의 糾明에 力點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주로 理念的인 問題에 관해서는 敘述的으로 比較하되, 平面的인 敘述을 피하고 可及的이면 그 特徵이나 基本性格을 浮刻시키려고 努力하였다.

또한 經濟力量 比較에 있어서도 양쪽의 經濟體制가 實現한 成果(Performance)를 重點的으로 比較하고 이를 위하여 一次的으로 經濟力量 比較에 必要한 北韓의 各種 經濟指標들을 一定基準(資本主義的 概念)으로 統一시키고 다음으로 比較된 數値가 갖는 經濟構造上的 重要도와 成果率 및 經濟的 效率 등에 力點을 두어 客觀的으로 綜合 評價하고자 하였다.

II. 南北韓 經濟의 本質

1. 經濟体制의 比較

가. 私的 所有制度와 社會的 所有制度

資本主義 經濟体制은 私有財産制度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生産手段을 個人이 所有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主義 經濟体制下에서는 私有財産制度를 否定하는 바탕으로 해서 生産手段의 所有를 全적으로 社會化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은 國民生活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치는 道路, 港灣, 發電 施設 等 主要 社會間接資本 施設과 國公有林을 包含한 國有土地, 江, 河川, 湖水 및 海域과 水域 等 國家全體의 利益을 위한 國有財産을 除外하고는 모든 財産과 生産手段이 私的 所有로 되어 있는 反面, 北韓은 個人의 賃金이나 分配量으로 購入할 수 있는 基礎 生必品以外的 모든 生産物이나 生産手段이 國公有化 되어 있으며 他共產諸國에 比하여 私有的 範圍가 극히 制限되어 있는 것이 特徵이다.

北韓은 이러한 所有制度의 確立을 위해 1950年代 後半에 들어와서 모든 個人의 私有財産과 中小商工業을 “利用→制限→改造”라는 3段階 政策을 驅使하여 完全히 國公有化 하였으며, 土地를 비롯한 農業生産手段도 壓力과 強制手段을 動員, 國營農牧場이나 協同農場에 吸收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所有制度上的 本質的인 差異는 經濟主体의 生産活動에 參與하는 目的, 經濟機構의 組織과 機能上的 差異를 必然적으로 隨伴하게 되는 것이다.

나. 市場經濟體制와 計劃經濟體制

南北韓은 서로 相異한 所有制度를 바탕으로 各己 다른 經濟機構에 의해 運營되고 있는데, 經濟組織面에서 資源의 配分 및 經濟活動이 韓國은 市場機構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北韓은 中央執權의 計劃에 의하여 劃一的으로 이루어지는 計劃經濟體制를 實施하고 있다.

經濟機構의 機能面에서 살펴보면 韓國의 市場經濟 構造가 自律的인 自動調節機能을 갖고 있는 것과는 對照的으로 北韓의 그것은 中央當局에서 一方的으로 마련한 計劃에 의하여 管理·運用되는 統制的·執權的 機能을 갖고 있다.

韓國의 市場經濟는 經濟活動의 目的이 私的 利潤의 追求에 있기 때문에 經濟活動의 結果로서 얻어지는 剩餘(Surplus)는 利潤으로서 私的 資本의 所有者에게 所屬되며 이와같은 利潤의 大部分은 經濟發展을 위한 資本蓄積을 뒷받침하는 源泉이 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計劃經濟에 있어서는 經濟活動의 目的이 國家自體의 要求를 充足시키는데 優先을 두고 있다.

北韓의 모든 經濟活動은 高度로 執權化된 中央計劃當局에 의하여 集團的으로 이루어지며 그 結果로서 얻어지는 生産物이나 收入도 國家全體에 歸屬되는 것이다.

따라서 市場經濟體制는 個個의 經濟主體에 대하여 自由와 平等한 權利를 重要視하는 가운데 合理的인 經濟活動이 自律的 價格機構에 의하여 運營되는 것인데 比하여 計劃經濟體制는 어느 한 個人의 自由와 權利보다는 國家의 目的을 앞세우기 때문에 私的 經濟主體가 犧牲되더라도 強力한 中央計劃當局은 經濟를 主導하는 主體가 되어 全權的으로 計劃·管理하므로써 計劃當局을 除外한 모든 經濟單位들은 他律的이며,

受動的인 性格을 띠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北韓은 오늘날의 다른 共產國家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原始的인 計劃經濟를 固守하고 있는데 이는 그 類型으로 보아 드레브노프스키(Jan Drevnovski)가 말하는 典型的인 獨裁모델(Dictatorship Model)에 屬한다.

한편, 市場經濟體制와 計劃經濟體制的 相異로 兩體制間에는 價格의 機能과 役割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

北韓에서의 價格은 需要와 供給에 의해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中央計劃當局에 의해 政策的으로 決定되고 있기 때문에 商品需給의 調節者의 機能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이와같은 價格決定의 人爲的 機能은 經濟規模의 增大에 따른 計劃 및 管理業務의 過多로 計劃管理機構의 肥大化를 招來하였고, 利潤動機가 缺如됨에 따라 下部生産單位의 創意와 能率을 低下시키고 있다. 또한 計劃目標의 過多策定으로 인하여 計劃部署와 生産單位間에 摩擦을 招來, 生産성이 低下되고 있는 것도 特徵的인 現象이다. 北韓은 이를 克服하기 위해 思想的인 刺戟方式과 持續的인 社會主義 勞動競爭運動을 통한 生産增大를 試圖해 왔으나 별다른 效果를 보지 못하고 있다.

最近에 와서 北韓이 1930年代 蘇聯이 採擇하였던 原始的인 中央執權的 計劃經濟體制的 固守에 限界를 느끼고 뒤늦게 生産企業이나 工場의 獨立採算制 強化와 地方豫算制度의 採擇, 價格의 機能 및 役割의 強調 等 經濟管理 面에서 部分的인 變化를 試圖하려는 徵候를 엿보이고 있는 것은 注目할만 하다.

蘇聯이나 東歐 共產諸國은 이미 이와같은 生産能率의 低下를 防止하기 위하여 1960年代 初般부터 生産活動에 利潤原理를 導入하고 決定機能을 下部機關에 分散시키는 等 制度上的 改革을 斷行해 왔으며 最近

에는 中共까지도 實用主義 路線의 採擇으로 實用主義 經濟體制 變化를 推進하여 오고 있다.

다. 開放經濟와 閉鎖經濟

南北韓의 經濟體制는 經濟開發 戰略面에서 보면 서로 그 內容을 달리하고 있다.

韓國經濟가 開放體制를 取하고 있음에 反하여 北韓은 “一國 社會主義”라는 “스탈린” 方式에 따라 閉鎖體制를 固守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南北韓의 經濟體制를 比較 評價하여 그 實際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南北韓의 經濟開發은 多少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南北韓 共히 人口에 비해 國土가 狹少하고 資源 및 蓄積 資本이 不足한 與件下에서 出發하였기 때문이다.

1961年 韓國의 1人當 國民所得은 82弗에 不過하였다.

産業構造面에서도 農林·水産業이 國民總生産의 38.7%를 차지하여 生産性이 낮은 部門이 主種을 이루고 있었으며 當장 開發할 수 있는 自然資源도 없는 어려운 與件이었다.

所得水準이 낮으니 消費의 絶對水準이 낮을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國內需要가 적어 産業이 擴張될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녀시(Nurkse R.)가 말한대로 貧困하니까 더욱 貧困하여지는 “貧困의 惡循環” 그대로라고 하겠다.

이러한 與件下에서 經濟의 後進性을 脫皮하기 위하여 내세운 戰略이 바로 對外指向的 經濟開發, 즉 開放經濟를 確立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韓國은 開發初期부터 良質의 人力을 土臺로 새로운 技術을

꺾得하여 生産性을 向上시키고 世界市場에서 比較優位가 있는 分野를 開拓토록 經濟의 開放化를 積極的으로 推進하였으며, 이것은 結果的으로 IBRD, IMF, ADB, GATT 等 國際 및 地域金融機構와 國際貿易機構와의 經濟協力 關係를 크게 擴大시킴으로써, 經濟開發에 必要한 外資의 圓滑한 確保와 韓國의 國際的 地位 向上에 크게 寄與하는 한편, 지난 60年, 70年代의 刮目할만한 高度成長과 發展을 이룩하는데 原動力이 되었던 것이다.

1984年 現在 韓國이 1人當 國民所得 1,999弗에 貿易依存度는 國民總生産의 74% 程度를 차지하고 있고 輸出高 또한 292億弗에 肉薄함으로써 멕시코, 臺灣, 香港, 싱가포르와 더불어 新興工業國家(NICs: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의 일원이 되기에 이른 것은 開放經濟의 成果를 端的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反하여 北韓은 原始的 形態의 閉鎖體制인 “오타르키”(Autarky) 經濟體制를 固守하여 왔는데, 이는 1966年 勞動黨 代表者 會議에서 “社會主義 經濟建設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問題는 自力更生의 原則下에서 自立的 民族經濟를 建設하는 것이 黨의 一關된 路線”이라고 宣言, 그들의 孤立主義的 閉鎖體制를 強調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오타르키” 體制는 “各國은 綜合的인 産業基盤을 保障해야 한다”는 “스탈린”式的 “一國家 社會主義”를 教條的으로 模倣한 것이며, 한편 1960年代 中半期부터 共產圈으로부터의 授助가 激減됨으로써 이와같은 孤立的인 閉鎖體制는 한층 더 強化되었다 하겠다.

그러나 北韓의 對內指向的 成長에는 限界가 있기 마련이며, 閉鎖體制의 固守로 인한 資源不足과 技術落後는 經濟成長 鈍化의 主要한 要因이 되고 있다.

北韓은 이와같은 經濟成長의 限界를 克服하고 經濟沈滯를 打開하기

위해 70年代의 6個年 經濟計劃 期間중에 對外 經濟協力을 試圖, 外資 및 플랜트 導入을 推進한 바 있으며 특히 1984年度에는 金日成의 蘇聯 및 東歐 巡訪, 中共과의 頻繁한 接觸, 合營法 發表 등 보다 積極的인 開放姿勢를 取하고 있다. 그러나 國際的인 信用이 失墜되어 있는 데다가 投資與件의 未備와 輸出不振 등으로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70年代 末부터는 外貨不足으로 累積된 外債의 償還에 커다란 試鍊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實情이다.

이는 北韓經濟가 지금까지 持續되어온 閉鎖的 自立經濟体制의 固守로 인하여 經濟運用能力의 未熟, 產業構造上的 缺陷 등 開放体制에 대한 適應能力이 缺如된 데에 起因한 結果이기도 하다.

2.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比較

南北韓 經濟政策의 基本方向을 보면 韓國은 經濟政策의 基本目標을 國民福祉의 向上과 自立經濟의 達成에 두고 있으며, 아울러 北韓의 對南挑發과 緊張激化 試圖에 對應키 위한 效果的 國防力 增強에 두고 있다. 이러한 目標을 達成키 위한 具體的인 政策으로서는

첫째, 安定基調 위에서의 成長追求란 立場을 取하고 있다. 따라서 石油波動으로 惹起된 지난 1973年末 以後의 國際的인 不況, 1980年의 一時的인 社會不安과 凶作으로 인한 由來없는 マイナス成長 등 어려움에도 不拘하고 70年 以後 오늘날까지 平均 7~8%의 高度成長을 持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輕工業 發展을 土產으로 한 重化學工業의 建設促進政策을 強力히 推進함으로써 工業基盤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1974年에 이미 26萬屯級の 油槽船을 建造하였는가 하면 1984年에는 輸出商品

의 95%가 工產品으로서 産業構造 및 輸出商品構造의 高度化를 達成하였으며 이는 國際競爭力의 向上에도 크게 寄與하고 있다.

세째, 農漁村 經濟의 革新的 開發政策을 追求, 1960年代에는 第 1, 2 次 經濟開發 計劃을 통하여 農漁村의 開發에 注力하였고, 1968年 以後에는 農漁村 所得增大와 環境改善을 위하여 農外所得事業 및 새마을事業, 農民後繼者 育成事業을 重點的으로 推進하여 産業高度化에 따른 農村人口의 都市로의 流入을 抑制하는 가운데 農漁村의 所得增大와 福祉水準 向上에 注力하고 있다.

네째, 國際協力을 바탕으로 한 對外指向的 工業化를 追求함이다. 그 結果 韓國은 지난 1960年代 以後 劃期的인 輸出伸張을 통해 높은 經濟成長을 이룩함으로써 對外指向的 經濟政策이 海外經濟 與件의 變化에 크게 影響을 받으면서도 韓國經濟의 發展을 成功的으로 主導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北韓 經濟政策의 基本方向으로는

첫째, 閉鎖的 自立經濟體制를 固守하고 있는 北韓은 經濟體制를 社會主義的으로 改造하면서 부터 自力更生의 原則을 堅持하여 왔다. 이는 生産手段 및 消費財에 대한 内部需要를 基本的으로 自体内에서 充足시키고 아울러 技術革命과 擴大 再生産의 物質的 條件을 自体的으로 解決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閉鎖體制에 따른 自力更生 原則의 固守는 國家間 資源과 商品의 交流에서 오는 國際分業의 利益을 얻지 못하게 되는 結果를 가져 왔다.

둘째, 重工業 優先政策의 繼續的인 追求이다. 本來 重工業은 1次産業과 輕工業의 뒷받침 위에서 技術的 基盤이 마련되어야 效果的인 發展을 기할 수 있는 것인데도 不拘하고, 北韓은 採取工業, 金屬工業, 機

械工業等 重工業의 發展에 力量을 集中하여 왔는데 그 結果 産業間 不均衡의 深化와 資源의 浪費로 70年代 以後 長期的인 經濟成長의 鈍化를 招來하게 되었다.

北韓은 1961년부터 1970년까지 10年間 重工業과 輕工業間의 投資의 配分은 무려 8:2의 심한 不均衡을 나타냈으며, 그후 1971년부터 시작한 6個年 經濟改革에서도 兵力의 增強과 함께 軍需産業과 關聯된 重工業 優先政策을 조금도 緩和하지 않았는데 그 結果 同 計劃은 1975年 8月에 事實上 中斷되었고, 1976~77年末을 産業間에 深化된 不均衡을 是正하는 “緩衡期”로 設定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北韓이 耐乏生活에 의한 最大限의 蓄積과 軍需産業 위주의 重工業 優先政策을 繼續적으로 推進함으로써 오늘날의 北韓住民生活은 低位의 水準에 머물러 있다.

세째, 國防과 經濟의 竝進策을 들 수 있다. 北韓은 1962年 12月 勞動黨 第4期 5次 全員會議에서 4大 軍事路線을 採擇하였으며 특히 60年代 中半期에 共產圈의 理念紛爭과 中·蘇 紛爭의 激化로 “國防部門에서의 自衛”를 提唱, “經濟發展을 遲延시키더라도 軍事力을 더한층 強化해야 한다”고 強調하고, 1966年 10月 黨代表者會議에서 國防建設과 經濟建設 竝進策이 公式化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나 經濟發展과 軍事力 強化를 同時에 追求하려면 資源의 歪曲配分에서 오는 浪費를 감수해야 되며 그 結果로 北韓 住民들에게 極度の 耐乏生活을 強要하고 있음은 물론 끝없는 社會主義 勞力競爭運動을 통해 住民生活의 犧牲을 招來하고 있는 것이다.

Ⅲ. 南北韓 經濟開發의 成果 比較

1. 分斷 直後의 産業與件

1945年 8.15 解放 以前 韓半島의 經濟는 日本의 植民地 政策에 따라 獨立된 經濟體制로서의 有機的 構成을 갖지 못하였다. 解放과 더불어 日本의 企業家, 管理人 및 技術者들의 撤收가 뒤따랐고, 그들이 남기고 간 産業施設마저 제대로 稼動이 되지 못하게 되었음은 당연한 歸結이라 하겠다.

더우기 38度線을 境界로 한 南北分斷은 그 停滯狀態를 深化시켰다. 8.15 當時 南北韓의 産業配置는 南農·北工으로 불리울 만큼 特徵적으로 區分되어 있었다. 즉 北韓地域은 相對적으로 豊富한 地下資源과 水力資源을 利用한 金屬, 化學工業 등이 配置되어 있었던 반면, 南韓地域은 주로 農業地帶로 시 약간의 輕工業施設이 分布되어 있었다.

따라서 南韓地域에서 必要로 하는 電力, 中間材의 相當量을 北韓地域에서 供給받고 있었으며, 北韓地域에서 不足한 食糧은 南韓地域에서 供給하는 등 地域的 補完關係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國土分斷에 따라 이러한 補完關係가 깨어지면서 南韓의 産業은 北韓의 電力 및 原料供給源을 잃게 됨으로써 北韓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 北쪽으로 부터의 送電中斷으로 말미암아 京仁工業地帶에서는 所要電力의 約 70%가 不足하여 工業生産의 극심한 萎縮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밖에 南韓의 産業을 痲痺시킨 또 하나의 重大한 要因은 解放後의 政治的, 社會的 混亂이다. 歪曲된 自由의 亂舞, 左右翼 政黨間의 鬭爭

과 罷業騷動 등으로 政治的, 社會的 混亂은 그 절정에 達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企業家들은 長期的인 生産計劃을 세울 意慾을 잃고 있었으며, 短期的인 商業利潤이나 投機를 追求하는데 急急한 狀態였다.

1947년에 實施된 朝鮮銀行의 한 調查結果는 上記 諸要因에 의한 産業活動의 沈滯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企業體數가 1944년에는 10,065個였던 것이 解放當時에는 折半 以下인 約 4,500個 業體로 줄어 들었으며 雇傭人員도 約 41%程度 減少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48年 南韓의 製造業 生産水準은 1939年 生産의 約 15%에 지나지 않았다. 部門別로는 農機構를 비롯한 機械生産이 約 70%, 化學品 95%, 織維製品 60%, 食料品이 80% 減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鑛業生産도 資金 및 技術 不足 등 要因으로 痲痺狀態에 빠져 있었고 다만 重石鑛의 生産은 國際的 需要의 增加에 따라 增産되었으며 한편 國內需要의 增加로 無煙炭鑛의 開發이 增大되었을 따름이다.

이와 같은 鑛工業 生産의 激減은 需要와 供給의 深刻한 不均衡을 招來하여 通貨量의 膨脹과 함께 惡性 인플레이의 要因이 되었다. 그런데 農業生産에 있어서만은 대체로 해방전의 水準을 維持했으나 北韓住民의 越南 등 人口增加로 不足한 食糧을 外國으로 부터 導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蘇聯軍이 진주한 38度 以北의 北韓地域에서는 日本이 남기고 간 重要産業을 國有化하였으나, 管理人 및 技術者의 不足 등으로 이를 復舊, 整備하는데 많은 期間이 所要되었다. 즉 1947년에 第1次 1個年計劃, 1948년에 第2次 1個年計劃, 1949~50년에 第1次 2個年計劃을 實施하였다. 그 結果 北韓의 工業生産은 1959년에 이르러 비로소 1944年의 水準을 回復하였다.

2. 6.25動亂과 戰後 産業復舊

6. 25動亂으로 南北韓 共히 諸般 産業施設과 道路交通 및 港灣施設들이 破壞되고 既存의 生産組織과 流通秩序가 무너짐에 따라 産業生産은 매우 低調하였다. 農業部門에 있어서도 비료의 供給 등이 圓滑치 못한 데다가 水利施設의 破壞와 農業用水의 不足으로 그 當時의 主種産業인 農業部門의 生産마저 低調하였다.

韓國에 있어서 總財貨 生産의 約 70%를 占하였던 農業生産, 特히 米穀의 生産은 1951~52년에는 平年作의 3분의 2 水準의 生産에 不過하였다. 水産物의 生産量도 動亂이 勃發한 1950년에는 激減하였으나 그 다음해 부터는 從前의 生産實績을 回復하였다.

以上과 같이 産業의 生産活動이 低調한 데다가 政府의 戰費調達로 인한 通貨膨脹으로 物價는 急騰하였다. 動亂中 美國을 비롯한 國際聯合의 緊急救護物資 爲主의 援助가 繼續되어 物資缺乏을 緩和하긴 하였으나 需要量을 充足시킬 程度는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休戰以後 産業復舊事業도 主로 美國의 援助에 의해 推進되었다.

1954~59年の 戰後 復舊期間에 韓國이 美國 等 友邦과 國際機構로부터 받은 援助의 總額은 約 27億弗에 達하였으며 이는 期間中 總投資額에 對하여 約 70%를 擔當해 준 結果가 된다. 즉 이 期間中에 이루어진 總投資中 國內貯蓄으로 充當된 것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外國의 援助에 依存하였다.

休戰後 美國의 對韓 援助는 6. 25動亂으로 말미암아 荒廢化된 韓國 産業의 復舊와 그 後의 發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忠州肥料工場, 仁川板유리工場 및 聞慶시멘트工場の 建設 등이 이를 代表하고 있다. 그 밖에 1百餘輛의 디젤機關車 購入, 170마일의 新鐵道 路線의 建設과

馬山, 三陟 및 唐人里 第2火力發電所도 이 時期에 建設되었다.

한편 北韓에서는 자신이 挑發한 6.25動亂으로 인해 각종 産業施設이 致命的인 打撃을 받았다.

이에 關해 한 共產圈 資料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6.25動亂으로 말미암아 北韓에 있는 870個의 工場 및 企業所가 破壞 당하고 大多數의 發電所와 炭鑛, 鑛山이 操業能力을 喪失하였다. 따라서 戰爭의 마지막 해인 1953年の 鑛工業 生産은 1949年 水準과 比較할 때 64%까지 低下되었고 特히 生産財를 生産하는 部門의 水準은 42%까지 低下되었다.” 北韓은 6.25動亂이 끝난 1954년에 3個年 經濟計劃을 樹立하고 戰亂으로 破壞된 産業施設을 復舊함으로써 産業生産을 1949年の 水準으로 回復하는데 全力을 다하였다. 이 戰後復舊 3個年計劃은 蘇聯, 中共 및 東歐共產諸國으로부터의 經濟 및 技術 援助와 勤勞者, 農民들의 勞力을 土台로 計劃目標가 達成되었다고 北韓은 發表하였다. 이 計劃期間을 通하여 거둔 成果로서는 破壞된 産業施設, 特히 重工業基地의 復舊建設 以外에 社會主義的 經濟形態를 強化한 것이었다. 事實上 이 計劃期間中 가장 重要한 特徵的 變化의 하나로 社會主義制度의 強化에 따른 産業構造의 顯著한 變化를 들 수 있는데 이를 部門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1949年の 鑛工業 生産額中 國營 및 協同團體의 生産比重은 90.7%였으나 1955년에는 98.3%로 높아졌으며 鑛工業部門의 民間生産은 主로 手工業的 日用品, 小規模의 精米所, 打綿業, 建材業에 限定되었다. 또한 農業 總生産額中에서 國營農場과 農機械賃耕所를 包含한 社會主義的 部分이 차지하는 比重은 1949년에는 3.2%에 不過했다.

그런데 1954~58년에 集團農場化를 施行함으로써 協同農場과 國營農場의 生産比重은 絶對的인 優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商業部門에 있어서도 1949~1955년에 國營 및 協同團體 商業의 比重이 顯著히 提高되었다. 즉 小賣商品 流通額中에서 차지하는 그 比重은 56.5%에서 84.6%로 높아진 반면, 個人商業은 15.4%로 萎縮되었다. 이 3個年計劃 期間中에는 北韓은 重工業의 優先的 發展과 輕工業의 急速한 復舊發展을 圖謀한다는 基本政策에 따라 基本建設投資를 工業部門에 集中하여 大規模 工場의 復舊建設과 技術人力 養成에 注力하였다. 그 結果 工業部門 生産은 1949年 水準에 接近하게 되었으며 工業部門에 從事하는 人口 構成比도 높아졌다. 따라서 計劃期間中 鑛工業部門은 異例의인 높은 成長을 達成했으나 滿足할만한 것은 못되었다.

왜냐하면 計劃의 初期 年度에 있어서의 鑛工業生産의 成長率은 매우 높았으나 마지막 年度에 가서는 相對的으로 減退하는 推移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즉 年度別 鑛工業生産의 成長率을 보면 1954년에 51%, 1955년에 52%, 1956년에 27%로 半減되고 있다.

한편 農業部門에서는 穀物生産을 戰爭以前 水準으로 끌어 올리려던 當初 設定한 目標을 達成할 수가 없었다. 計劃目標 自体가 非現實的이라고 해서 3次에 걸쳐 修正했을 뿐만 아니라 計劃에 比해 37%나 더 많은 資金을 投入했음에도 不拘하고 實績은 結局 計劃에 未達하였다.

3. 經濟的 成果

가. 産業開發計劃과 그 成果

1962년부터 計劃的인 經濟開發에 着手한 韓國은 第1次 計劃期間에 年平均 7.9%, 第2次 計劃期間에 9.6%, 第3次 計劃期間에 9.8%로

成長을 加速化하면서 1962~79년에 平均 9.2%의 高度成長을 持續하여 왔다.

1980年代에 들어와서는 世界經濟 不況의 餘波로「마이너스」成長을 記錄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도 있지만 扎实的 安定化 施策에 힘입어 安定的인 經濟基盤을 굳혀 나가고 있다.

그런데 韓國은 自由經濟體制를 基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經濟開發計劃은 市場經濟를 바탕으로 하여 國民經濟가 나갈 方向을 이끌어 준다는 點에서 어디까지나 誘導計劃(Inductive Plan)으로서의 性格에 그치고 있다. 즉 이 誘導計劃은 처음부터 計劃目標와 이를 達成하기 위한 手段을 分明히 하고 이의 推進主体가 政府가 되는 共產國家의 統制計劃(Control Plan)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韓國의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推進過程을 살펴보면 第1次計劃(1962~66年)에서는 政府가 큰 役割을 擔當하였다. 電力, 鐵道, 港灣, 通信等 社會間接資本을 擴充함으로써 開發基盤을 構築하는데 注力하였기 때문에 많은 部分이 政府에 의하여 推進되어야 하였다.

따라서 計劃內容 自体도 物量目標와 推進手段들이 名記되는 多分히 具體적인 物量計劃이었다. 그러나 漸次 經濟規模가 擴大되고 複雜化되어 民間資本의 領域이 擴大되면서 計劃自体의 性格이 보다 抽象化되어 誘導計劃 形態로 變貌해 갔던 것이다.

이처럼 第1次計劃期間에는 隘路部門의 打開을 爲한 開發投資를 擴大하면서 한편으로는 輸出增大와 輸入代替產業의 育成에도 注力하였다.

제 2次計劃期間(1967~71年)에는 電子工業, 石油化學工業의 開發等을 통한 工業構造의 改編과 輸出產業 主導의 高度成長, 高米價 政策에 따른 農業所得의 增大를 圖謀하였다.

第3次計劃期間(1972~76年)에는 劃期的인 造船施設의 擴充, 綜合製

鐵所의 完工, 石油化學工場의 建設擴大 等 重化學工業의 發達을 通해 工業構造를 高度化시켰다.

또한 四大江 流域 開發을 비롯한 國土의 綜合開發에 着手하였으며 새 마을運動을 通한 農漁村의 環境改善과 所得增大로 農漁村 近代化에 새로운 章을 열었다.

제 4 次計劃期間(1977~81年)에는 機械, 電子, 造船을 中心으로 하는 技術 및 熟鍊勞動集約的 産業의 比率을 보다 높여서 産業構造를 高度化하는 한편 그동안의 開發成果를 바탕으로 하여 綜合的이고 体系的인 社會開發을 推進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韓國經濟는 1980年에 들어서서부터 對內外 環境의 惡化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1979年初 이란의 回教革命에서 비롯된 第2次 石油波動과 이에 따른 世界景氣의 沈滯 等 對外 經濟與件이 惡化되었고 1980年에는 農作物凶作까지 겹치어서 對內經濟가 沈滯局面에 접어들므로써「마이너스」成長, 높은 物價上昇, 國際收支의 惡化라는 三重苦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多幸히 1981年 以後부터는 多少의 起伏과 不均衡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어려움에서 서서히 벗어나 꾸준한 回復勢를 보이고 있으며 1984年에는 海外經濟 與件의 好轉에 힘입어 輸出이 빠른 速度로 늘어난데다 民間消費와 設備投資를 中心으로 國內需要도 好調를 보임으로써 當初에 目標한 堅實한 成長을 이룩하였다.

以上과 같이 韓國經濟는 20餘年間의 開發計劃期間을 通하여 後進農業國으로부터, “新興工業國(Newly Industrialized Country)”으로 急速히 탈바꿈 하였는데 이에는 韓國 나름대로의 工業化 戰略과 對外指向的인 開發戰略이 實效로 거둔 結果라 하겠다.

즉 韓國은 開發初期에 計劃을 推進함에 있어서 自由 企業의 原則을 土臺로 하되 基幹産業과 그밖의 重要部門에 對해서는 政府가 이에 關與하거나 間接的으로 開發을 誘導하는 方向으로 나갔다.

그리하여 政府는 社會間接資本을 擴充하여 民間企業의 投資環境을 造成하고 不足한 投資財源의 圓滑한 調達을 爲하여 外資導入體制를 確立하였으며 國際協力の 擴大와 함께 貿易面에서도 輸出伸張에 注力하면서 輸入自由化의 幅도 늘려나가는 開放體制로 나아갔다.

이에 反하여 北韓은 全面的인 中央執權的 計劃經濟 내지 指令經濟體制를 運營하고 있으며 原始形態의 閉鎖的인 自給自族 經濟體制를 固守하고 있다.

北韓은 1947년부터 經濟計劃을 實施하여 왔으나 中央執權的인 計劃經濟 形態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1957~60年の 第1次 5個年 計劃부터 였다고 할 수 있다. 特히 1958年末 生産手段에 對한 社會化가 完成된 後부터 個人的 自由意思에 基礎한 生産活動이 一체 否認되고 “人民經濟運營에 勞動黨의 意思”가 組織的으로 作用하는 段階에 이르렀다.

1958年 以來 北韓은 中央集權的 計劃機構를 設置하고 自由市場이나 競爭價格을 否定한 土臺위에서 生産財의 割當制, 消費財의 配給等 모든 經濟活動을 中央으로부터의 命令에 따르는 “指令經濟體制”로 轉換시켰다. 北韓의 中·長期計劃에서는 社會總生産 및 主要 産業別 生産의 增加, 社會總生産의 投資, 消費 및 軍事支出, 主要 財貨의 生産目標等이 提示된다. 그리고 이를 基礎로 하여 年次別 計劃이 作成된다. 年次別 計劃에서는 모든 財貨와 企業所에 對한 生産活動目標와 生産指令이 包含되며, 資源의 用途別 配分이 提示된다.

北韓의 産業開發計劃을 經濟發達 程度에 따라 大別해 보면 다음의 3段階로 區分된다. 즉 1945~60年, 1961~70年, 그리고 1971年以

後의 3 段階이다.

第 1 段階인 1945~60年은 共產政權의 樹立, 6. 25動亂과 戰後 復舊를 거쳐 計劃經濟體制를 強化한 期間이다.

그동안 國際環境은 소위 中·蘇 密月時代로 物心兩面에서 中共 및 蘇聯의 支援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第 2 段階인 1961~70年은 中·蘇 對立의 여과를 받아 前半期는 蘇聯과 對立, 後半期는 中共과 對立하는 等 共產圈의 兩大國 紛爭에 휘말려 들어간 期間이었다. 특히 그동안 쿠바 危機, 베트남戰의 影響을 받아 軍事力 增強에 狂奔한 結果 經濟建設은 순조롭지 못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強力한 社會主義 工業國家로 成長했다”고 1970年 11月의 第 5 次 勞動黨大會에서 宣傳, 強調하였다.

第 3 段階인 1970年 以後는 北韓이 中·蘇 對立의 틈바구니에서 소위 “主體思想”을 強調하기 시작하면서 同時에 第 3 世界에 대한 外交를 積極的으로 推進하는 한편 西方世界와의 接觸을 試圖한 새로운 時代가 된다. 특히 日本이나 西歐諸國과 交流함으로써 先進設備과 技術을 導入했기 때문에 北韓으로서는 巴야흐로 技術革命의 推進時代가 된다. 그러나 西方諸國과의 接觸은 近代의 工場建設의 代價로서 對外債務 累積과 對外債務償還 不履行이라는 뜻밖의 事態를 招來하여 마침내 北韓 經濟의 脆弱性을 드러내는 結果가 되고 말았다.

1971년부터 시작된 6 個年計劃은 1975年 8 月末로 事實上 中斷되었으며, 約 2 年半의 調整期를 두고 1978년부터 第 2 次 7 個年計劃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6 個年計劃期間中에 造船, 機械, 發電所 등 大規模 建設과 最初의 石油化學工場 建設이 있었지만 그 裏面에는 各 產業部門間의 不均衡, 科學技術革新의 遲滯, 生産品의 높은 코스트 등 여러 가지 問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요컨대 北韓은 戰後復舊 3個年計劃과 이에 뒤이은 5個年計劃에서는 異例적으로 높은 成長을 實現했으나 그 後의 計劃들은 그 成果가 基本目標에 未達하여 蹉跌을 빚었다. 그런데 戰後의 異例적으로 높은 成長率은 6.25動亂의 戰災로 인해 그 出發水準이 極히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說明된다. 第1次 7個年計劃에서는 鑛工業은 그 目標의 72.2%, 農業은 57~67%, 水産業은 50~70%밖에는 達成하지 못했으며 同計劃의 3年 延長期間에는 石炭과 電力만이 目標를 達成했다.

70年代初부터 推進된 6個年計劃에서도 鐵鋼, 시멘트를 비롯한 主要産業의 生産目標가 全般的으로 未達되어 2年 6個月 延長한 바 있다. 또한 第2次 7個年計劃(1978~84)期間中에도 역시 工業部門中 60%이상의 目標遂行率을 記錄한 部門은 織物, 시멘트, 化學肥料, 工作機械 뿐이고 農水産部門에서는 알곡生産뿐이며, 나머지部門에 對하여는 一體 發表를 忌避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當初 計劃目標에는 훨씬 未達한 것으로 評價된다.

나. 産業部門間的 構造

韓國의 工業化過程을 보면 輸入代替나 輸出에 關聯된 輕工業部門에서 出發하여 重化學工業으로 漸次 移行해가는 方向으로 나갔다. 輕工業은 投資資本의 懷妊期間이 짧고 勞動集約的이며 技術習得이 容易하여 開發初期의 資本不足, 過剩人力, 技術落後 등의 與件에 비추어 當時로서는 時宜에 알맞는 開發産業部門이었다. 따라서 輕工業은 輸入代替 혹은 輸出을 통해 國際收支 改善에 寄與하였는데 纖維, 合板, 針葉類는 한동안 韓國의 輸出을 代表하는 工產品들이었다.

開發初期에 輕工業部門의 開發은 短期的 生産擴大 및 輸出增大에 크

게 寄與하였다. 그러나 1970년에 들어서면서 다음과 같은 問題들이 提起되었다. 첫째, 原料 및 中間財 등의 對外依存度가 深化되어 國際的인 資源波動이 일어난 1970年代 初半의 狀況下에서는 困難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다. 둘째, 값싼 勞動力을 土台로 한 比較優位는 우리를 뒤 쫓고 있는 後發 開發途上國들에 의하여 危脅을 받게 되었다. 셋째, 輸出規模가 10億弗(1970年)을 넘어서자 새로운 輸出商品의 開發이 要請되었다.

즉 輕工業製品 爲主의 輸出體制는 限界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60年代에 重點 開發되었던 纖維, 合板, 신발類 등의 輕工業은 製品의 高級化로 繼續 發展시키면서 보다 技術集約的인 새로운 産業의 開發에 注力하게 되었다.

韓國의 第3次 5個年 計劃에서는 重化學工業을 建設하여 工業構造의 高度化를 기한다는 것이 그 重點目標의 하나로 登場하였다.

이를 爲해 所謂 重化學工業 開發計劃이라는 것이 비로소 樹立되었다. 이때 重點開發하기로 決定한 重化學 基幹産業은 6個部門이었다. 鐵鋼, 機械, 自動車, 電子, 造船, 石油化學 등이 이에 屬한다. 重化學工業의 開發은 輕工業部門에 比하여 一般的으로 資本, 技術이 더 많이 要請되고 危險負擔이 더 크게 된다.

따라서 開發初期의 制限된 資本, 落後된 技術水準 및 不確實한 市場 展望 등을 가지고는 이 部門의 開發을 着手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韓國의 境遇 60年代 10年間의 産業開發 經驗을 土台로 하여 工業構造의 高度化를 爲한 重化學工業의 開發戰略을 70年代初에 採擇한 것은 時宜에 맞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開發戰略을 採擇한 結果 그동안 韓國의 産業構造는 크게 改善되었다. 1961년에 國內 總生産에 對한 農林·水産業의 比率은 40

%, 工業의 比率이 13%로 後進國의 典型的인 産業構造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23년이 지난 1984년에는 國內總生産에 對한 農林·水産業의 比率은 16.0%, 鑛工業의 比率은 26.0%,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의 比率은 58.0%를 차지하게 되었다. 더우기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重化學工業의 發達에 따라 工業構造도 急速히 改善되어 갔다.

重化學工業 對 輕工業의 比率은 1970年の 40% 對 60%에서 1979년에는 51% 대 49%로 높아졌다.

北韓의 産業은 重工業 優先의 政策基調下에서 軍需關聯工業의 發達에 置重한 結果 여러 産業部門 사이에 不均衡이 擴大되어 이에 따라 마침내 成長을 制約하는 隘路部門이 發生하고 있다.

北韓의 年平均 總投資額 가운데서 鑛工業部門에 對한 投資比重은 前後 復舊 3個年計劃(1954~56年)에서는 49.6%, 第1次 5個年計劃(1957~60年)에서는 51.3%, 第1次 7個年計劃과 그 延長期(1961~70年)에서는 60%에 達했다. 이같은 鑛工業 投資額의 構成을 보면 重工業이 壓倒的인 比重을 차지했다.

重工業과 輕工業 사이의 相對的 比率은 1954~56년에는 81.1% 對 18.9%, 1957~60년에는 82.6% 對 17.4%였다.

60年代 前半期에 北韓은 7個年計劃의 基本課題의 하나로 “住民生活의 向上”을 내세워 輕工業에 對한 關心을 가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 輕工業에 對한 年平均 投資比率은 28%에 불과했는데 이는 60年代에 내걸었던 이른바 “經濟와 軍事建設의 竝進路線”을 그대로 견지했기 때문이다. 즉 그 竝進策으로 말미암아 軍事支出이 大幅 增大되고 보니 主로 輕工業 分野에 돌아갈 投資의 몫이 相對的으로 減少되지 않을 수 없었다.

最近 이른바 “輕工業 革命,” “人民奉仕革命,” 等の 口號아래 北韓住民들의 生活必須品을 中心으로 한 各種 輕工業 製品의 生産에 注力하고 있다고 宣傳하고는 있으나 實際로 그 實績은 不振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지 北韓이 지금까지 소홀히 하여 왔던 輕工業 部門의 落後性을 認識하고 이를 強調하고 나서고 있다는 事實 自体가 注目꺼리가 될 뿐이다.

다. 南北韓 GNP 增加推移 比較

以上과 같이 南北韓은 各各 獨自의인 經濟發展을 追求해 왔는데 이를 GNP의 成長推勢를 통해 動態的으로 살펴보면 韓國이 1962년부터 經濟開發 計劃의 成功的 推進으로 總量面에서 急激한 成長推勢를 보여 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北韓은 아직까지도 經濟的 沈滯現象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北韓이 私的 所有 否認으로 비롯된 勞動意慾 喪失, 技術 落後 등으로 因해 低生産性을 면치 못하고 있고 더우기 閉鎖体制의 固守로 對外經濟協力과 先進資本 및 技術導入이 여의치 못한데다가 軍需産業爲主의 重工業 優先政策을 無理하게 推進하여 産業間의 甚한 不均衡을 招來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當然한 歸結인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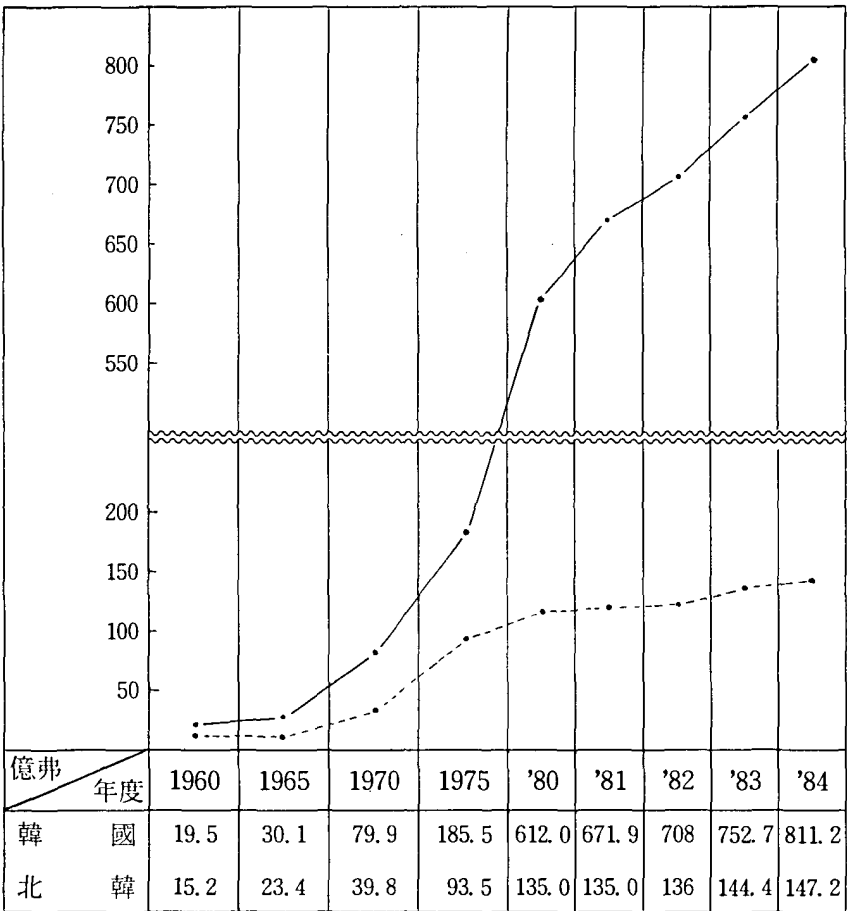
南北韓 總量規模의 增加推移는 人口 1人當GNP에 있어서도 많은 變化를 가져왔는데 韓國은 지난 1974年度를 分岐點으로 하여 1人當GNP가 北韓을 凌駕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隔差 또한 커지고 있는 趨勢에 있다.

특히, 1984年度에는 韓國은 經濟安定基調위에 착실한 經濟成長을 示

顯한 반면에 北韓은 低調한 經濟成長과 높은 人口增加率, 換率의 下落 등으로 인해 1人當 GNP가 前年度보다 오히려 減少됨으로써 그 隔差는 더욱 擴大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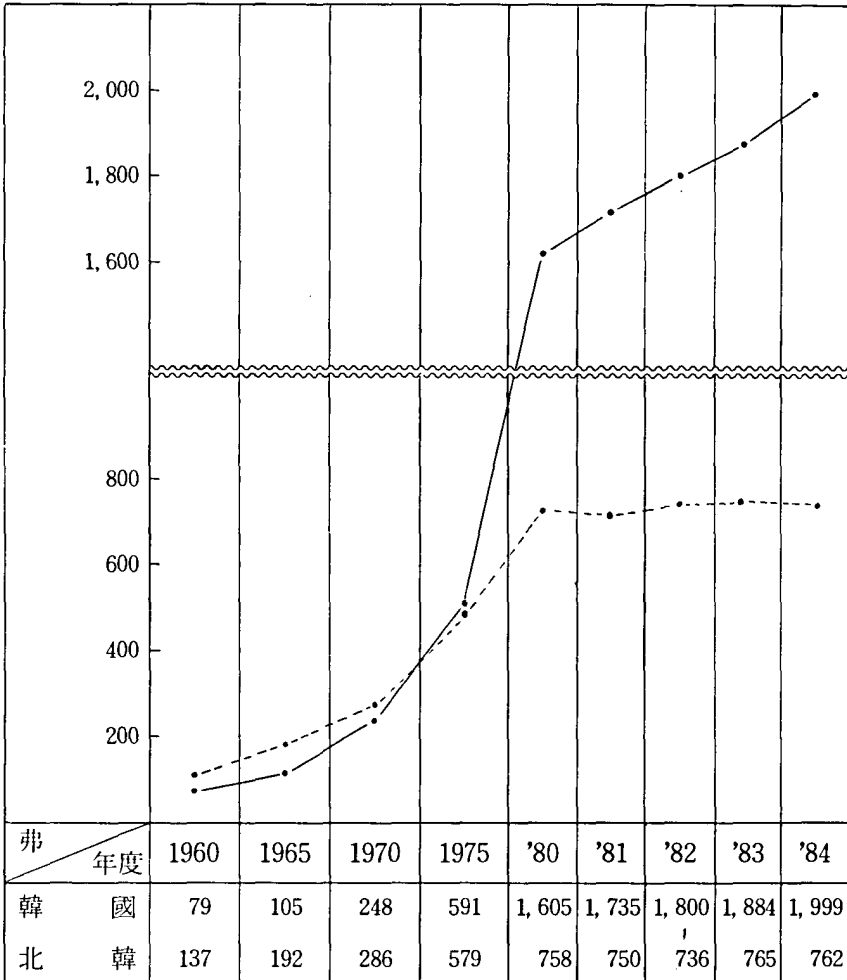
南北韓 GNP 增加推移

— 韓國
 - - - 北韓



南北韓 1人當 GNP 變化推移

—— 韓國
 - - - - 北韓



IV. 主要 部門別 現況 比較

1. 總量 部門

가. 人口 및 領土

南北韓의 人口는 1984年 年央人口 (Midyear Population) 基準으로 韓國이 4,058萬名, 北韓은 1,932萬名으로 推定되고 있다.

人口增加率은 韓國이 1.57%, 北韓은 2.23%로서 韓國보다 北韓이 상당히 높다. 經濟活動人口는 韓國이 1,498萬名으로 總人口의 36.9%이며, 14歲以上人口 對比의 經濟活動 參加率은 53.9%로 나타났다.

이에 比하여 北韓은 經濟活動人口가 853萬名으로 總人口의 44.1%이고, 經濟活動 參加率은 67.4%로서 韓國보다 越等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北韓은 78萬名에 달하는 正規軍과 10萬餘名の 警備隊를 保有하고 特別獨裁對象區域 및 教化所에 많은 收容者들을 收容하고 있어 人口構造上으로 보면 非經濟活動人口의 幅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經濟活動 參加率이 韓國보다 높은 理由는 1970年 11月 第5次 黨大會에서 “女性들을 부엌으로부터 解放시킨다”는 政策決定에 따라 거의 大部分의 家庭主婦가 生産活動에 從事하게 되었고 “일하지 않는 者는 먹지 말라”는 黨의 方針에 따라 社會扶助의 對象인 老人들도 거의 大部分이 勞動에 從事하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은 이와같이 높은 經濟活動 參加率을 보이고 있는 反面, 勞動生産性에 있어서는 극히 낮은 水準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體制内部의 構

造的 問題點으로 經濟의 有機的인 흐름 (economic flow) 을 制限하고 있고 있는데다가 老朽化된 機械設備를 改善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起因하는 것이다.

그외에도 北韓은 原料, 燃料의 不足으로 工場·企業所가 頻繁히 操業을 中斷하고 있고 設備 및 裝備의 故障으로 稼動을 中斷하는 事例가 많아 暫定的 失業狀態를 誘發시키고 있다.

지금 北韓은 이 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4大 自然改造事業”이라는 名目하에 潜在的인 遊休勞動力을 西海岸의 干潟地 開墾과 野山 및 遊休地 開發에 集中 投入하고 있으나 投資財源 不足으로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國土面積은 韓半島 全體가 22萬餘km²인데 이중 韓國은 9萬9千km²이고, 北韓地域은 12萬2千餘km²로서 韓國이 總面積의 45%, 北韓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國土의 利用面에 있어서는 韓國은 平野地帶가 많고 氣候條件이 좋아서 農業生産과 交通運輸面에서 有利한 立地條件을 갖추고 있어 國土의 綜合的 利用과 開發로 全天候 農業施設을 擴充하였고 全國이 1日 生活圈에 屬하도록 1,421km에 達하는 高速道路網이 完成되는 등 國土를 效率的으로 利用하고 있다.

이에 비해 北韓은 國土利用에 不利한 山岳地帶가 많고 狼林山脈을 分岐點으로 東西地域이 分離되어 있는데다 東, 西海岸마저 分離되어 있는 등 不利한 條件으로 國土開發이 綜合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地下資源에 있어서는 大部分의 有用資源이 北韓地域에 偏在되어 있고, 水資源도 豊富하므로 工業의 立地條件이 韓國보다 상당히 有利한 立場이라 하겠다.

나. 國民總生産

南北韓의 總量規模를 比較하면, 1984年 現在 韓國은 GNP가 811億弗이며, 1人當 GNP는 1,999弗의 水準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GNP가 147億弗, 1人當 GNP는 762弗로 GNP는 韓國이 北韓보다 5.5倍, 1人當 GNP는 2.6倍 높은 水準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北韓에 있어서는 1人當 GNP가 1983年末의 그것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韓國보다 相對적으로 높은 人口增加率과 低調한 經濟成長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같은 經濟總量 規模의 顯著한 隔差는 韓國經濟가 60年代 以後 高度成長을 持續하였고, 1973~74年, 1978~79年의 2次에 걸친 世界的 不況과 1980年의 政治的 騷擾事態 等の 어려움에도 不拘하고 이에 適切히 對應하여 온 反面에 北韓은 資本의 浪費와 非效率的인 投資로 慢性的인 經濟沈滯 局面에 처하게 되는데 연유한다.

GNP에 대한 軍事費 負擔率은 韓國의 경우 1984년에 5.4% 水準으로 國際的인 水準으로 볼 때 다소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經濟規模의 擴大와 더불어 낮아지는 趨勢에 있는 反面에 北韓의 경우는 23.3%로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水準을 繼續 堅持하고 있다.

이와같은 높은 軍事費 負擔은 經濟成長面에서 볼 때 生産的인 支出이 아니므로 軍事費 負擔이 많은 만큼 成長의 潜在力을 蠶食하고 따라서 沈滯의 根本的인 要因이 되기도 한다.

主要 總量 指標

(1984年 現在)

區 分	單位	韓 國	北 韓	備考(韓國:北韓)
人 口	千名	40,578	19,320	2.1:1
人口增加率	%	1.57	2.23	-
經濟活動人口	千名	14,984	8,534	1.8:1
面 積	km ²	99,022	122,098	1:1.2
G N P	億弗	811	147	5.5:1
1人當 GNP	弗	1,999	762	2.6:1
經濟成長率	實質%	7.5	3.9	-
軍事費/GNP	%	5.4	23.3	-

2. 財 政

가. 南北韓 財政制度의 特徵

韓國은 私有財産制度和 民間經濟活動이 主軸을 이루고 있고 또한 國民經濟中 民間經濟 部門의 比重이 크기 때문에 財政의 國民經濟에서 的 比重은 相對的으로 적다.

1984年 決算豫算의 경우 全 會計中 一般會計規模는 137.4億弗이며, GNP 811億弗에 對比한 財政負擔率은 16.9%를 나타내고 있어 國民經濟에서의 役割은 대단히 작은 편이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北韓의 財政은 經濟活動의 모든 部門을 反映하며 統制하는 機能을 가지므로 財政의 役割은 中央執權의 統制經濟를 遂行

하여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重要한 手段이 되고 大部分의 經濟活動은 財政에 의하여 充足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財政規模는 決算基準으로 1984年の 경우 110.8億弗이며 經常 國民總生産에 대한 歲出의 比率을 나타내는 財政負擔率은 75.3%에 달하고 있는 바 이것은 同年 韓國의 財政負擔率 16.9%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서 共產主義的 財政의 特徵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 歲 出

1984年度 韓國의 一般會計部門 歲出規模는 前年度에 비해 8.8% 增加한(前年度の 黑字財源 5,804億원을 除外할 경우 前年對比 增加率은 3.1% 임) 11兆721億원으로 137.4億弗 規模이고 部門別 歲出 構成比는 一般行政費 10.1%, 防衛費 31.7%, 開發費 45.7%, 地方財政交付金 및 其他가 1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歲出 構成比를 前年度와 比較하여 보면 一般行政費와 防衛費는 前年水準으로 凍結되거나 下落한 反面에 開發費와 地方財政交付金の 構成比는 前年水準 보다 增大되었음을 特徵的으로 나타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84年中 韓國의 財政이 物價安定基盤을 最優先 目標로 하는 經濟施策方向에 맞추어 財政規模의 膨脹 抑制와 公共部門의 綜合財政收支를 改善시키는데 主眼點을 두고 運用되었기 때문이다.

즉 韓國政府는 黑字財源을 除外하고 歲出凍結原則에 따라 큰 增減이 없이 豫算을 編成하여 一般行政費와 防衛費를 前年度水準으로 抑制시키는 한편, 教育環境改善事業, 社會福祉施設 擴充 및 國民生活의 基本

需要와 關聯된 部門에 力點을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經濟開發費에 있어서는 核心産業 技術의 開發促進, 農業基盤 擴充, 治水事業 및 觀光開發에 대한 重點支援이 繼續되는 가운데서도 民間主導로 經濟運用 方式을 보다 積極化하여 前年度 보다는 3.5% 縮小되었다.

· 한편, 公式 發表된 北韓의 歲出規模는 北韓貨로 262億원(110.8億弗)으로서 그 構成比는 人民經濟費 62.3%, 社會文化施策費 21.1%, 軍事費 14.6%, 機關管理費 2.0%로 構成되어 있다.

그러나 北韓은 이와같은 支出構成比 가운데 人民經濟費 또는 社會文化施策費에 軍事費의 相當 部分을 隱蔽시키고 있기 때문에 實質的인 財政支出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軍事費의 경우만 하더라도 兵力維持費, 軍事部門 投資費 등을 勘案하여 調整하여 본 結果 實質的인 支出 構成比는 歲出의 31.0%로 評價되었다.

1966년부터 公式發表된 北韓의 歲出 構成比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現象을 發見할 수 있다. 즉 1966년의 境遇 人民經濟費가 68.4%, 軍事費가 10.0% 이었으나 1967년부터 1971년까지는 人民經濟費가 44~50%로 減少되고 軍事費가 一躍 31~32%로 크게 增加되었으며, 1972年以後에는 다시 人民經濟費가 55% 以上으로 늘어나면서 軍事費는 15~17% 水準으로 激減되고 있다.

더우기 最近 들어와서는 15% 以下 水準으로 까지 낮게 發表하고 있어 注目を 끌고 있다.

이와같이 軍事費가 時期에 따라 크게 變化하는 것은 北韓이 必要에 따라 意圖的으로 軍事費를 他費目에 隱蔽시키고 있다는 事實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1966년까지 “民族保衛費”라고 부르면서 10% 以下로 發表해

은 軍事費를 1967年 “國防費”로 改稱하고 그 構成比를 30.4%로 大幅 增加시켜 發表한 것은 從前에 人民經濟費 等に 隱蔽했던 것을 現實의 으로 드러내 놓은 것으로서, 60年代 中·蘇紛爭이 激化됨에 따라 北韓이 獨自路線을 標榜하면서 南侵野慾을 露骨化한데 起因한 것이다.

그후 1972年부터 갑자기 軍事費가 折半으로 減少되고 人民經濟費가 다시 增加한 것은 東西和解와 南北赤十字會談 等 南北間의 接觸에 따라 對外宣傳을 考慮하여 “平和이미지” 浮刻을 위해 軍事費를 他費目에 다시 隱蔽시켰기 때문이다.

그 實證的인 證據로는 1972年 以後 人民經濟費가 急增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北韓經濟의 成長은 鈍化되었고 또한 그렇게 軍事費가 激減되었음에도 不拘하고 戰爭準備를 위한 人的, 物的 動員이 지금까지 繼續強化되고 있음이 이를 反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北韓은 財政의 效率的 運用與否가 北韓의 經濟的 成果를 가름하는 것이므로 北韓의 慢性的 經濟沈滯는 軍事部門에 置重한 過多한 投資와 不均衡的인 財政의 浪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歲 · 入

韓國과 北韓은 理念과 制度가 서로 對立되는 만큼 財政收入의 源泉에 있어서도 아주 判異하게 나타나고 있다.

韓國의 境遇 財政收入은 租稅, 稅外收入, 專賣益金 등으로 構成되고 있으며 1984年 이의 構成比는 各已 85.0%, 7.8%, 7.2%로서 租稅收入이 大宗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租稅收入을 稅目別로 보면 內國稅는 1982年末의 所得稅率 및 法人稅率 引下로 所得稅 및 法人稅의 增加가 鈍化되었음에도 不拘하고

經濟成長에 따른 自然增收에 힘입어 前年度보다 8.2%나 增加하였고, 關稅도 1983年 原油價 下落을 契機로 實施된 原油關稅를 賦課함에 따라 前年度에 비해 8.9%나 그 收入이 높아졌다.

이에 비해 北韓의 경우에는 소위 “社會主義 經理收入金”으로 全歲入 豫算을 充當하고 있다는 것이 特徵이다.

또 하나의 特徵적인 것은 北韓은 生産活動에 隨伴되는 收入이 거의 모두 財政收入이 되고 있다는 點으로서 이는 財政規模가 GNP의 76%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社會主義經理收入金의 內容은 去來收入金, 國家企業利益金, 協同團體 所得稅, 其他 收入으로 構成되고 있는데 各各 項目別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去來收入金은 社會主義經理收入部門의 55% 이상을 점하고 있는 가장 主要한 것으로 “社會 純所得部門中 國家의 中央執權의 純所得에 屬하는 社會主義 經濟에서 派生된 國家利潤의 한 部分”이라고 定義하고 있는 바 이러한 說明에 따르면 一般的으로 理解하고 있는 韓國의 間接稅와는 根本적으로 다른 것이다.

즉 모든 生産手段과 財貨가 社會化되어 있고 經濟活動 역시 國家의 唯一的인 計劃하에 움직이는 北韓에서 流通過程을 통해 거두어 들이는 收入은 國家의 利潤이지 稅金이 될 수 없다는 論理인 것이다.

去來收入金은 生産物 價格에 一定한 比率로 미리 固定되어 있는 것으로서 주로 最終 生産物의 消費價格에 賦課된다. 이는 中間生産物인 一部 生産手段의 價格에도 賦課되고 있어 計定上 重複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이 境遇에 中間生産物도 最終生産物의 性格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二重으로 計定되지 않는다고 主張하고 있다.

둘째, 國家企業利益金은 獨立採算制에 의하여 運營되는 各種의 企

業所 및 生産工場에서 一定期間에 얻어진 利潤中 一定比率의 自体經費를 控除한 殘餘基金을 中央當局에 納付하는 것으로서 總豫算 收入의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세째, 協同團體 所得稅란 各種 協同團體의 生産活動에서 얻어진 收入중 一定比率을 中央에 納付하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其他 收入金은 減價償却回收金 및 罰課金, 關稅, 援助收入 등으로 構成되며 歲入總額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勤勞所得稅, 文藝所得稅, 地方自治稅 등이 1974年까지는 歲入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75년부터 이것을 撤廢, “税金이 없는 唯一한 나라”라고 内外에 宣傳하고 있다.

이는 住民들이 直接 負擔하는 所得稅와 住民稅 등은 税金이지만 社會主義 經理에서 얻어지는 收益은 主人인 國家가 마땅히 차지해야 하는 利潤의 一部이기 때문에 결코 税金이 아니라는 論理에 根據한 것이다.

北韓의 公式發表에 따르면, 1984年末의 財政收入은 北韓貨로 前年度보다 8.1% 增加된 263.5億원(美貨로 111.7億弗)에 이르고 있다.

3. 農 水 產 業

가. 農業構造의 比較

韓國은 60年代 中半以後 重農政策을 推進하여 쌀·보리의 自給과 農家所得의 顯著한 增加를 이룩하였다.

70年代에 들어와서 제 3次 計劃期間 중에는 全 產業이 年平均 11%의 高度成長을 이룩하는 가운데 農林·水產業도 5.8%의 높은 成長率을 記錄하였는데 이는 土地面積의 制約에도 不拘하고 科學的인 營農技

術을 導入한데 起因한다.

그러나 農業生産의 自然的 制約과 工業部門의 高度成長의 結果, 韓國의 産業構造에서 차지하는 農業의 比重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趨勢에 있다.

즉 農水産業部門 生産이 國內總生産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60年代에는 約 36%이던 것이 70年代에는 25%이었고 80年代에 들어와서는 16% 水準으로 減少되었다.

한편, 北韓의 農業은 韓國에 비해 絶對적으로나 相對적으로 不振한 實情에 처해 있다. 이것은 北韓이 險峻한 地形地勢, 不利한 氣候條件 등 自然條件에도 影響을 받고 있지만 보다 根本적으로 “農業의 集團化”라는 制度上的 限界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土地의 私的所有와 自由耕作을 認定하지 않는 北韓은 農業을 集團化하여 運營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營農體系는 積極的인 生産活動을 制約하는 主要原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北韓은 1966년부터 營農體系의 集團化에서 오는 生産減退 現象을 脫皮하기 위해 이른바 “分組都給制”를 實施, 15~20名으로 構成된 分組責任 아래 모든 生産活動을 責任지게 하여 低調한 生産實績을 높여 보고자 試圖하고 있지만 實際로는 별 效力을 發生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특히 産業全體의 構造面에서 北韓은 無理한 重工業優先政策을 推進하여 온 까닭에 限定된 財源과 落後된 營農技術 등으로 農業發展을 期待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1984年末 社會總生産에서 차지하는 農産物의 生産比重은 20% 水準에 不過한 것으로 評價된다.

나. 農業生産의 基盤

1984年 現在 韓國의 耕地面積은 215.2萬 町步로서 全体面積의 21.7%를 차지하고 있으나, 北韓은 213.6萬 町步로 全体面積의 17.5%를 占하고 있어 耕地의 絶對面積이나 總面積에 대한 耕地率이 모두 韓國보다 약간 劣勢에 놓여 있다.

그러나 南北韓 耕地面積의 차이는 60年代까지만 하더라도 韓國이 越等히 優勢하다가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漸次 減少되는 傾向을 보여 주고 있음은 注目할만 하다. 이와같은 現象은 韓國의 耕地面積이 經濟發展에 따른 都市化 및 工業化의 進展에 따라 農耕地가 工場敷地, 道路建設, 都市擴張 등으로 蠶食되고 있는데 起因한다.

南北韓의 耕地面積을 논과 밭으로 區分해 살펴보면, 韓國은 논이 全体 耕地面積의 61.3%인 132萬 町步, 밭이 38.7%인 83萬 2千 町步이나 北韓은 이와 對照的으로 밭이 149萬 6千 町步로서 70%, 논이 64萬 町步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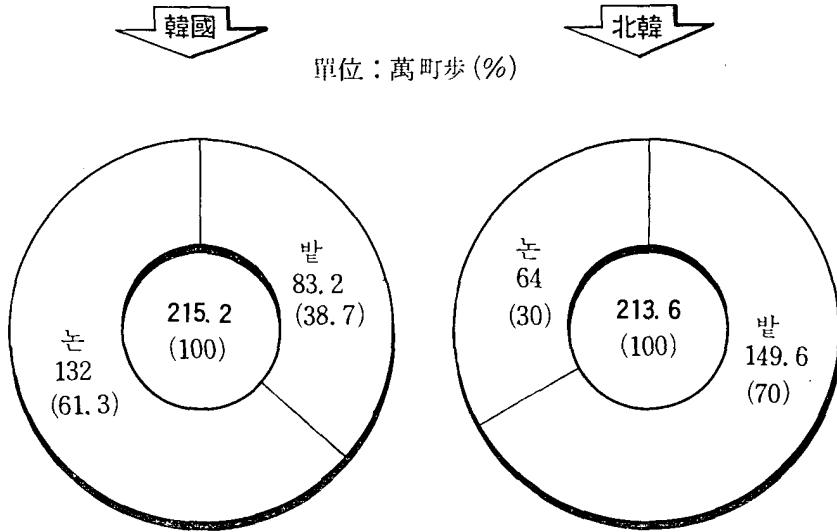
논面積이 적은 北韓은 논의 面積을 늘리기 위해 1976年 10월 黨 5期 12次 全員會議에서 “自然改造 5大方針”을 採擇, 干潟地 開墾과 土地整理로 논의 面積을 늘리려 하고 있으며, 最近에 이르러서도 “4大 自然改造事業”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으나 資本不足으로 所期의 成果를 얻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南北韓 農家人口는 1984年 現在 韓國이 902萬名으로 全人口의 22.2%에 該當하며 農家戶數는 197萬戶이다.

北韓의 경우는 農家人口가 733萬名으로 全人口의 37.9%를 차지하고 있고 農家戶數는 146萬 6千戶로 推定된다.

따라서 耕地面積을 農家戶當 面積으로 計算하여 보면 韓國이 1.09정

南北韓의 耕地面積



보인데 비해 北韓은 1.46정보로 北韓이 多少 높게 나타나고 있다.

農業의 機械化를 보면, 韓國의 경우 70年代 中半以後 持續的인 重工業 部門의 發展에 힘입어 農業 機械化가 急速히 推進되었다.

1984年 現在 韓國은 트랙터를 包含하여 動力耕耘機가 54.8萬台, 揚水機 30餘萬台 등을 保有, 稼動하고 있으나 北韓은 트랙터 (15馬力 換算基準) 約 13.6萬台와 그밖에 조잡한 連結 農機械를 協同農場의 農機械作業班이 保有하고 있는 實情이다.

化學肥料의 供給實態를 보면 韓國은 1967年까지 相當量을 輸入에 依存하였으나 1968年부터 完全 自給이 可能해졌으며 1971年 “統一系”의 多收穫 벼品種의 開發로 消費量이 急增, 다소 自給率이 떨어지는듯 하다가 1976年부터는 化學肥料의 自給自足과 더불어 輸出物量까지 確保

하여 놓고 있다.

1984年 現在 韓國의 肥料生産量은 成分含量 基準으로 前年度에 비해 13.6%가 增加된 139.4萬屯을 記錄하였다.

化學肥料에 있어서는 北韓도 日政時에 建設한 興南肥料工場을 비롯, 青年化學綜合工場, 아오지 化學工場 등에서 化學肥料를 生産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需要는 充足되는 것으로 보인다.

1984年 現在 南北韓의 耕地面積當 施肥量은 成分含量 基準으로 韓國이 정보당 354kg인데 비해 北韓은 정보당 378kg으로 北韓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北韓은 外國으로부터 칼리肥料 全量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으며 均衡的인 施肥體系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育種理論과 營農技術面에서 韓國은 이미 國際水準에 달하여 統一, 維新, 水原벼 系統의 多收穫品種의 栽培가 一般化됨으로써 1984年 現在 段步當 쌀 生産量이 461kg에 이르고 있으나 北韓은 아직도 日政時의 育種理論과 蘇聯 및 中共의 低級한 理論에만 依存하고 있어 1984年 現在 段步當 쌀 生産量은 345kg에 머물고 있다.

이상과 같은 農業生産基盤을 綜合評價해 볼 때, 韓國은 논이 北韓의 2倍로써 水稻作 中心의 農業을 營爲하게 되는데 비하여 北韓은 밭이 韓國의 約 1.8倍로서 옥수수를 主種으로 하는 밭농사 爲主의 農業이고 耕地面積, 霜降日數 및 氣溫, 降雨量 등 自然條件面에서 韓國이 有利한 農業基盤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韓國은 人口 1人當 耕地面積에 있어서 北韓의 절반정도에 不過하고 耕地整理水準, 水稻作 中心 등에서 오는 機械化營農上的 不利點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營農部門 主要 指標

(1984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耕 地 面 積	萬町步	215. 2	213. 6
農 家 人 口	萬名	901. 5	732. 9
段步當 쌀生産量	kg	461	345
農機械 保有台數	千台	動力耕耘機：538. 3 트랙터：9. 7	트랙터 (15馬力換算) 136
化學肥料 施肥量	정보當 kg (成分含量基準)	354	378

다. 食糧作物 生産

韓國의 食糧生産 實績은 營農技術의 發展과 土地生産性의 向上으로 旱魃이 심했던 1967~1968年의 2 個年度와 極甚한 冷害로 凶作을 記錄했던 1980年度를 除外하고는 지난 20年동안에 每年 4~5% 높은 成長을 이룩해 왔다.

1984年度 韓國의 쌀 生産量은 568. 2萬屯으로 前年보다 5. 1%의 增加를 보였고 薯類를 包含한 穀物 總生産高는 731. 5萬屯에 달하였다.

北韓은 食糧生産 實績을 國際的으로 전혀 通用되지 않는 粗穀概念인 알곡을 基準으로 誇張하여 發表하고 있을 뿐이며 그나마도 具體的인 統計의 內容에 대해서는 發表를 意圖的으로 忌避하고 있기 때문에 穀種別 生産量이나 精穀換算率, 심지어는 薯類의 包含與否까지도 正確히 把握하기가 어려운 實情이다.

北韓은 알곡 生産實績에 대해 解放直後인 1946年에 200萬屯이던

것이 1947~1949年間에는 薯類를 除外하고 230餘萬屯의 平年作 水準을 維持하다가 農業協同化 過程에서 生産量은 漸次 上昇되어, 1961년에는 490餘萬屯, 1963년에는 500萬屯을 生産하였다는 등 飛躍的인 増産이 이루어진 것처럼 發表하고 있다.

南北韓 食糧作物 生産量

(單位：精穀基準 千M/T)

區 分 年 度	韓 國			北 韓		
	穀 物	薯 類	合 計	穀 物	薯 類	合 計
1970	6,160	783	6,943	4,000	306	4,306
1971	6,085	707	6,792	4,060	269	4,338
1972	6,069	674	6,743	3,780	256	4,036
1973	6,148	611	6,759	4,140	243	4,383
1974	7,464	543	6,921	4,172	289	4,461
1975	6,932	740	7,672	4,213	215	4,428
1976	7,535	671	8,206	4,273	208	4,481
1977	7,402	603	8,005	4,540	221	4,761
1978	7,663	565	8,228	4,357	212	4,569
1979	7,611	501	8,112	4,574	223	4,797
1980	4,905	431	5,336	3,710	200	3,910
1981	6,471	455	6,926	5,105	263	5,368
1982	6,449	369	6,818	5,189	270	5,459
1983	6,661	472	7,133	3,990	270	4,260
1984	6,950	365	7,315	5,373	227	5,600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소위 “主体農業”을貫徹하고 寒冷前線의 影響을 克服하여 정보당 알곡生産이 1974년에 논벼 5.9屯, 옥수수 5屯, 1979년에는 논벼 7.2屯, 옥수수 6.3屯으로 정보당 收穫高가 世界的 水準에 달하였다고 宣傳하는가 하면 제 2次 7個年 計劃이 終了된 1984年度에는 알곡 生産量이 目標值인 1,000萬屯에 達成하였다고 누차 強調하여 發表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 發表하는 食糧統計는 粗穀概念이라는 것 외에도 國家計劃目標 達成에 급급한 나머지 가장 잘된 部分을 샘플로 選定하여 統計를 作成하고 있기 때문에 統計發表値와 實際 生産量간에는 엄청난 誤差를 지니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通常 北韓이 發表하는 食糧統計를 精穀概念의 食糧統計로 바꾸기 위해서는 立苗減耗率, 搗精率, 統計値와 實生産値간의 誤差를 勘案하여 推定하는 도리 밖에 없다.

따라서 耕地面積, 植付体系, 病虫害 및 自然災害 등 自然條件과 育種水準, 營農技術, 施肥体系 등을 綜合的으로 檢討, 適用하여 볼 때 總穀物生産量은 1980年度에 約 400萬屯에 不過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84年度에는 560萬屯으로 推定된다.

라. 畜産業 實態

農業의 有畜化와 酪農化는 自給肥料의 原料를 供給하여 作物收穫을 높이고, 農繁期, 農寒期의 年中 勞動力 配分을 合理化 시킬 수 있는 利點이 있다. 더욱이 資本主義의 農業經濟에 있어서는 圓滑하게 資金을 回轉시킬 수 있는 重要部門이기도 하다.

韓國은 酪農業의 振興을 위하여 60年代부터 飼料供給뿐 아니라 經營

組織 全体를 合理的으로 運營토록 指導하고 특히 作物栽培部分의 集約도가 家畜飼料를 위하여 한층 높아지도록 連結시키는데 注力함으로써 急速히 成長하여 왔다.

한편, 北韓의 畜産은 國營畜産, 共同畜産(協同農場), 農民들의 副業畜産 등의 形態로 構成되어 있는데, 70年代 以後 漸增하는 畜産物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協同農場과 社勞靑員들에게 一定數의 家畜을 責任飼育케 하는 등 家畜 飼育頭數 增大에 注力하여 왔다.

그러나 北韓의 痼疾의인 飼料難, 疾病의 蔓延, 飼養管理 技術의 落後 등으로 별다른 發展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같은 南北韓 畜産業의 成長과 低成長의 根本的 差異는 他部門에서와 마찬가지로 對照的인 制度上的 差異에 起因한다. 이를테면 韓國은 個人的 直接的인 所得增大를 위하여 各 個人이 意慾을 가지고 自律的으로 努力하는데 반해 北韓의 畜産은 生産構造가 集團化되어 있어 生産物이 中央當局의 統制를 통해 個人에게 一律的으로 配給되고 있는데 이는 生産意志와 能率을 沮害하는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마. 水産業 實態

韓國은 3面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地域的인 條件과 豊富한 水産資源을 基礎로 하여 漁民의 所得增大, 水産物의 輸出擴大 및 持續的인 生産增大를 위한 基盤造成에 政策의 重點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水産資源 造成 및 繁殖保護를 비롯하여 漁業基本施設의 擴充, 淺海養殖事業 및 內水面漁業 開發, 遠洋漁業 伸張에 注力해 왔다.

北韓은 水産物을 食生活에 있어 重要的인 蛋白質 供給源으로 보고 生産增大를 위해 政策에 重點을 두고 있는 바, 2次 7個年 計劃에서 350萬

屯 目標를 超過達成 하였다고 宣傳하면서 이른바” 80年代 10大 展望目標”로 500萬屯의 生産目標를 設定하고 있다고 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北韓의 漁業基盤, 漁業構造 등을 살펴 볼 때 도저히 納得이 가지 않는 誇張된 宣傳에 不過하다.

1984年末 現在 南北韓의 主要 水産現況을 比較하면 漁船保有數에 있어서 韓國은 動力船 7萬2千餘隻을 비롯, 總 9萬餘隻에 이르고 있으나 北韓은 動力船 2萬3千隻을 包含, 總 3萬6千隻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水産物 生産量에 있어서는 1984年末 韓國은 總 281萬屯의 水産物을 生産한데 비해 北韓은 總 223萬屯의 水産物을 生産하고 있어 漁船保有數에 비한 生産實績은 北韓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現象은 北韓이 政策的으로 水産物 生産增大에 큰 比重을 두고 있음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마는 北韓의 人民들이 벌이고 있는 “200日 出漁戰鬪”, “300日 出漁戰鬪”와 같은 競爭運動을 통해 勞力動員의 極大化에 注力한 結果라고 할 것이다.

主要 水産業部門 現況

(1984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水 産 物 生 産 量	萬 屯	291	223
漁 船 保 有 數	萬 隻	9.0	3.6
그 중 動 力 船	萬 隻	7.2	2.3

4. 鑛工業

가. 政策目標 및 工業化 戰略

韓國의 經濟開發의 窮極的 目標은 國民生活의 向上에 있으며, 이는 豐饒한 消費生活를 可能케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生産財를 生産하는 理由도 生産財를 利用하여 보다 좋은 消費財를 보다 많이 生産하기 위한 것이다. 北韓은 그들 經濟體制의 窮極的 目標가 “人民生活의 劃期的 向上”에 있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軍需産業 爲主의 重工業 建設에만 힘쓰고 日常生活에 直結된 輕工業 部門의 建設을 極度로 抑制하여 왔기 때문에 實際에 있어서는 財源의 不足으로 關心조차도 돌리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周知하는 바와같이 이는 住民生活의 向上을 대단히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産業構造의 不均衡으로 인하여 經濟發展에도 隘路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의 工業化過程은 1960年代 初에는 輸入代替産業의 育成에 注力하였고 곧 이어 60年代 中半부터는 이것이 輸出産業으로 轉換됨으로써 高度成長을 主導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70年代에는 重化學工業을 開發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韓國의 工業化는 國內外 市場需要를 土臺로 消費財工業을 먼저 開發하고 다음에 生産財工業을 開發하였던 것이 特徵이다.

따라서 輕工業 基盤이 構築되고 社會間接資本施設이 擴充된 바탕으로 重化學工業이 劃期的으로 發展하고 있어 比較的 産業의 均衡 發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은 이와 反對로 消費財 生産을 無視하고, 重工業을 먼저 開發한 結果로 産業構造가 均衡을 잃고 社會間接資本施設의 不足, 輕

工業의 不振으로 全體의 經濟開發에도 非能率的인 結果를 招來하였다.

나. 鑛工業資源과 에너지

鑛工業資源의 埋藏과 分布에 있어서 北韓은 韓國에 비하여 훨씬 有利한 條件을 갖고 있다.

1945年 南北韓 分斷時 鐵鑛石은 90% 以上, 無煙炭은 87%, 有煙炭은 98%가 北韓地域에서 生産되고 있으며, 豊富한 水資源과 더불어 電力도 韓半島 全體의 92%가 北韓地域에 偏在되어 있었다.

더우기 日本 軍國主義者들이 韓半島를 大陸進出을 위한 兵站基地로 보고 南에는 農業生産基盤 構築, 北에는 兵器産業을 비롯한 鑛工業 部門을 重點 育成시킴으로써, 南北韓의 産業不均衡이 한층 深化되어 있었던 것이다.

8. 15 解放과 더불어 招來된 分斷은 南北韓間의 補完關係를 根本적으로 破壞하였으며 北韓은 이와같은 有利한 鑛工業資源을 바탕으로 工業化를 일찍 推進할 수 있었다.

1984年 現在 南北韓의 主要 鑛物 埋藏量을 比較해 보면, 石炭은 韓國이 15億屯인데 비해 北韓은 120億屯 水準으로 推定되는 바, 豊富한 水資源과 더불어 北韓의 電力生産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

鐵鑛石은 韓國이 1億 2千萬屯인데 비해 北韓은 30億屯으로 韓國의 25倍 程度이고 마그네사이트는 韓國에서는 전혀 生産되지 않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65億屯의 埋藏量을 保有하고 있다.

金·銀을 비롯한 其他 鑛物資源에 있어서도 망간만이 埋藏量面에서 韓國이 北韓에 비해 優勢를 보일뿐, 大部分의 鑛物資源이 埋藏量이나 生産量에서 北韓이 훨씬 優勢한 立場에 있다. 北韓은 이처럼 相對的으

南北韓 産業施設 配置現況(1944年度)

(單位：%)

區 分	地域別		區 分	地域別	
	韓國	北韓		韓國	北韓
工業總生産額	40	60	機械製作및金屬 加工業	72	28
發 電 所	8	92	化 學 工 業	18	82
煙 料 工 業	12	88	建 材 工 業	27	73
鑛 石 採 掘 業	22	78	紡 織 工 業	67	33
冶 金 工 業	10	90	알穀總收穫高	66	34

로 豊富한 鑛物資源을 開發하여 輸出의 主種商品으로 삼아 왔으며 最近에는 이를 半製品化하여 輸出함으로써 外貨稼得率을 높이는데 注力하고 있다.

한편 韓國은 賦存資源이 貧弱함으로 말미암아 資源의 海外依存度가 높으며, 重化學工業의 開發에 따른 資源需要의 增大와 함께 그 依存度는 더욱 深化되어 가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1973年 1次 石油波動 以來 繼續 增大傾向에 있는 “資源내셔널리즘”에 비추어 資源의 安定的인 供給이라는 側面에서 韓國은 長期的으로는 産業構造를 資源이 덜 드는 技術集約的인 産業體制로의 轉換을 摸索하는 한편 資源의 開發輸入體制를 強化하는 方向으로 推進하고 있다.

工業化의 原動力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開發과 生産을 보면 韓國은 石炭増産 施策의 持續的인 推進에 힘입어 1984年 2,137萬屯의 石炭을 生産하였다. 北韓도 역시 豊富한 石炭埋藏量과 지금까지의 不斷한 開

發努力으로 無煙炭과 有煙炭을 합하여 3,600萬屯을 生産한 것으로 評價된다. 그러나 南北韓은 共히 製鐵, 製鋼用 原料炭인 瀝青炭의 生産이 全無하므로, 이를 海外로부터 導入하고 있는바, 韓國은 有煙炭 1,219萬屯을 包含하여 約 1,299萬屯의 石炭을 輸入하였고, 北韓은 有煙炭중 粘結炭과 코크스를 150~200萬屯 輸入한 것으로 보인다.

主要 鑛物 埋藏量

(1984年)

區 分	品 位 (%)	單 位	韓 國	北 韓
鐵 鑛 石	Fe 50	億屯	1.2	30.0
銅	Cu 100	萬屯	10.5	215.5
鉛	Pb 100	"	49.2	600.0
亞 鉛	Zn 100	"	73.8	1,200.1
石 炭	4,000KCal/kg以上	億屯	14.5	119.9
石 灰 石	CaO 50	"	14.9	1,000.0
우 라 늑	U ₃ O ₈ 0.3~0.4	萬屯	5,600.0	2,600.0

精油施設은 韓國이 現在 日産 79萬배럴(年産 約 3,500萬屯)의 生産能力을 保有하고 1日 平均 50萬배럴 以上の 原油를 精製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蘇聯 및 中共 援助로 建設된 “勝利化學”과 “烽火化學”의 두 精油工場이 도합 日産 7萬배럴(年産 350萬屯)의 精油能力을 保有하고 있는데, 이나마도 原油導入의 不振에 따라 稼動率은 50~60% 정도에 不過한 것으로 判斷된다.

南北韓 原油輸入 實績은 1984年度에 韓國이 19,968萬배럴을 OPEC 諸國 등 10여개의 産油國에서 導入한데 비해, 北韓은 蘇聯, 中共, 이란의

3 個國에서 1,692萬배럴 정도를 導入한데 不過하다.

그러나 原油輸入의 增加率을 比較하여 보면 韓國은 前年度에 비해 3.5%, 北韓은 6.3%로서 北韓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기간 동안 北韓이 韓國보다 優位를 維持하여 왔던 電力도 1972 年을 기해 뒤떨어지기 시작했고 現在에는 상당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1984年末 現在 韓國의 發電施設容量은 原子力發電까지 합해 1,419 萬Kw인데 비해 北韓은 591萬Kw로 韓國의 1/2 水準에도 못미치고 있고, 發電量은 韓國이 538億Kwh인데 비해 北韓은 245億Kwh이다.

主要 에너지 現況

(1984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發 電 施 設 容 量	萬Kw	1,419	591
發 電 量	億Kwh	538	245
精 油 能 力	日產萬배럴	79	7
原 油 導 入 量	萬배럴	19,968	1,692
石 炭 生 產 量	萬屯	2,137	3,600
石 炭 輸 入 量	〃	1,299	150~200

電力供給構造 역시 韓國은 原子力發電所의 增設과 함께 有煙炭과 가스 燃燒用 發電所의 新·增設을 推進하고 있는 昨今の 努力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石油燃燒用 火力發電所가 위주인데 반해, 北韓은 落差가 크고 數量이 豊富한 鴨綠江과 豆滿江 水系를 源泉으로 하여 값싼 電力을 生産하는 水力發電이 全体 生産電力의 約 1/2 정도로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火力發電도 雄基發電所를 除外하고는 모두 石炭에 依

存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南北韓의 에너지 供給構造를 살펴보면, 韓國은 石炭 36.8%, 石油類 52.3%, 水力 1.1%, 原子力 5.5%, 石炭 4.3%로 構成되어 있는 것으로 算出된다. 이를 볼 때 韓國의 에너지 供給構造는 脫石油政策의 不斷한 努力으로 油類 依存度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海外에서 輸入하는 石油類에 約 52%를 依存하고 있는 등 에너지의 輸入 依存度가 約 75%를 上廻함으로써 에너지 供給構造의 脆弱性은 물론, 에너지 單價도 상당히 비싼 脆弱點을 안고 있다.

이에 비해 北韓은 에너지중 石炭의 供給比重이 約 77%에 달함으로써 에너지의 輸入 依存度가 相對적으로 낮은 편이고, 에너지 單價 역시 韓國에 비해서는 상당히 低廉하다고 할 수 있다.

에 너 지 供 給 構 造

(1984年)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에너지 供給總量	石油換算 萬屯	5,385	2,426
石 炭	%	36.8	76.7
石 油 類	"	52.3	11.7
水 力	"	1.1	4.4
原 子 力	"	5.5	-
新 炭	"	4.3	7.2

그러나 北韓은 이와같은 에너지 産業의 長點에도 不拘하고 最近 深刻한 에너지 不足問題에 直面하고 있는 바, 이는 “石炭은 金이다,” “石油은 피 한방울과 같다”는 등, 增産과 節約運動의 強調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埋藏量이 豊富한 石炭의 需給에 있어서도, 北韓은 1977年 以來 原油導入이 不振하자 일부 石油使用處를 石炭으로 代替하고 外貨獲得을 위한 石炭輸出을 劃策하고 있어 需要는 急増되고 있으나, 生産은 既存 炭鑛들의 採炭條件 惡化, 採炭裝備 落後 등으로 生産能率이 低下되고 있다.

한편 電力에 있어서도 北韓은 水力發電 設備의 老朽로 인한 故障이 頻繁하고 연중 11月 중순에서 다음해 3月末까지의 渴水期와 結氷期에 河川 數量의 不足과 結氷으로 稼動率이 低下되고 있어 電力需要가 가장 많은 季節인 겨울에 安定的인 電力生産과 供給이 어렵다.

다. 重化學工業

1) 鐵鋼 및 非鐵金屬工業

鐵鋼의 生産과 消費量은 한 나라의 國力과 工業化의 水準을 評價할 수 있는 基準이 된다.

韓國은 1973年 浦項製鐵의 第2 高爐 稼動을 契機로 1973년에는 粗鋼能力이 318萬屯을 保有하게 되었으며, 그후 同 工場의 第3期, 第4期, 增設工事 등으로 生産能力이 크게 擴大되어 北韓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1984年 現在 韓國의 粗鋼能力은 浦項製鐵의 910萬屯을 包含하여 1,455萬5千屯에 달하고 있으나, 北韓은 430萬屯 水準으로서 韓國이 北韓을 3倍 以上이나 앞지르고 있다.

銑鐵生産 能力은 韓國이 883萬屯인데 반해 北韓은 508萬屯이고, 壓延鋼材 生産能力은 韓國이 1,523萬屯인데 비해 北韓은 339萬屯으로 무려 4倍 以上の 差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鐵鑛石 需給面에서는 北韓의 경우 大部分 自体의 生産으로 充當하고 있으나, 韓國은 鐵鑛石을 비롯하여 古鐵 등 거의 大部分을 海外로부터 導入하고 있어 鐵鋼工業의 海外依存度는 75%에 달하고 있는 實情이다.

製鋼, 製鐵技術 및 生産시스템을 보면 韓國은 浦項製鐵이 最新設備을 保有하고 있는 가운데 꾸준한 技術開發을 推進해 나옴으로써 先進國 水準을 維持하고 있으나, 北韓은 日帝時에 建設한 既存 設備을 中心으로 部分的인 補修와 改築만을 推進해 온 關係로 製鋼能力이 銑鐵 生産能力 보다 低調한 構造의 特徵을 보이고 있고 특히 現在の 施設로는 汎用 鋼鐵을 除外한 高級製品 生産에는 많은 制約을 받고 있는 實情이다.

南北韓間의 全般的인 製鐵, 製鋼技術 水準을 比較, 評價해 볼 수 있는 代表的인 事例로는 910萬屯의 粗鋼能力을 保有, 稼動하고 있는 浦項製鐵의 從業員數가 附屬工場을 包含하여 約 1萬6千名인데 비해 北韓은 “金策製鐵所” 등 6個의 製鐵, 製鋼工場을 包含한 403萬屯의 粗鋼生産施設을 稼動하는데 從事하는 從業員數가 約 6萬5千名이라는 事實을 보더라도 充分히 그 水準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非鐵金屬 生産能力을 보면, 1984年 現在 北韓은 自体의 原料에 依據 鉛 3.8萬屯, 亞鉛 26.5萬屯, 銅 7.7萬屯을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는데 이 가운데 亞鉛의 生産能力은 咸興地區의 端川製鍊所 擴張으로 前年보다 大幅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은 製鍊施設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나 最近 蘇聯으로부터 技術 및 施設을 導入하여 平安南道 北倉에 年產 2萬屯 能力의 알루미늄工場을 建設중에 있으며, 1983年 8월에 第1期 工場이 完工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北韓으로서는 알루미늄 製鍊이 非鐵金屬 分野중 가장 落後된

産業으로서 비록 北倉알루미늄工場이 일부 完工되었다 하더라도 自体 需要를 充當할 뿐이며 輸出 競爭力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韓國은 1970年代 後半에 重化學工業 建設의 本格的인 推進과 더불어 急格히 增大되는 非鐵金屬 需要에 對處하기 위하여 慶尙南道 溫山地域에 非鐵金屬 團地를 造成하고 銅, 亞鉛, 鉛, 알루미늄의 大單位 製鍊 所가 完工되어 1984年 現在 鉛 1萬屯, 亞鉛 10.4萬屯, 銅 16萬屯, 알루미늄 1萬8千屯의 生産能力을 갖추게 되었다.

鐵鋼 및 非鐵金屬 生産能力

(1984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銑 鐵	萬屯	883	508
粗 鋼	〃	1,456	430
壓 延 鋼 材	〃	1,523	339
鉛	〃	1.0	3.8
亞 鉛	〃	10.4	26.5
銅	〃	16	7.7
알 루 미 늬	〃	1.8	1

2) 機械工業

機械工業은 北韓이 일찍부터 軍需産業 中心의 重工業優先政策에 따라 가장 力點을 두어 開發해 온 部門이다.

그러나 北韓은 이 部門에 있어서도 1970年 以後 韓國의 重化學工業의 重點的 開發과 急速한 發展으로 炭·鑛山의 大型 採掘設備 部門을

除外하고는 거의 모든 部門에서 劣勢한 局面에 處하게 되었다.

특히 自動車, 船舶 등 運送用 機械와 紡織機械, 電氣器機面과 電子 通信裝備, 精密機械 등에서 韓國은 先進國 水準에 突入함으로써, 北韓과는 比較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結果는 北韓이 內向性開發과 採算性を 無視한 軍需産業 위주의 機械工業 開發로 需要가 작은 大型機械들까지도 自体生産에 注力하였는데 반해 韓國은 對外指向的 成長과 需要에 따른 經濟的인 機械工業 育成을 推進하여 왔다는 점에 起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北韓은 軍需産業의 開發을 위해 聯關産業인 工作機械工業을 重點的으로 育成하였으나 韓國은 大型裝備나 機械를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고 있지만 市場經濟의 原理에 따라 需要가 많지 않아 大量生産이 不必要한 것은 生産하지 않고, 輸出産業 및 內需市場을 위주로 한 電氣, 電子, 輸送用機械, 紡織機械 生産部門 등을 特化한 때문이다.

主要 機械工業 部門의 生産能力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自動車는 韓國이 年間 33萬 7千台를 生産할 수 있는 施設을 保有하고 多樣多種의 車輛을 生産, 國內需要 充足은 물론 상당한 量을 輸出하고 있으나, 北韓은 平南 德川에 位置한 勝利自動車綜合工場에서 貨物自動車와 찢차 등 年間 1萬 8千台的 生産施設을 갖추고 있을 뿐이므로 北韓은 乘用車 및 大型 輸送用 車輛 그리고 特殊 貨物運搬車輛 등은 蘇聯, 체코, 日本 等地에서 輸入하고 있다.

造船部門에 있어서는 1984年 現在 韓國은 年間 400萬屯을 建造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年間 21萬屯 정도의 能力을 保有하고 있으나 이도 規格化된 貨物船과 冷凍運搬船을 內需用으로 建造하는데 不過한 零細性を 띠고 있는 것이 北韓의 現實이다.

最大船 建造實績 역시 韓國은 26萬屯級인데 비해 北韓은 2萬屯級 水

準으로 比較가 안될 만큼 造船技術 水準도 그 差異가 크다.

工作機械 生産能力은 韓國이 各種 旋盤, 볼盤, 터닝盤 등 年間 5萬台的 生産能力을 保有하고 있고, 컴퓨터가 裝置된 數値 制御旋盤(C.N.C.)을 비롯, 海外에서 好評을 받는 有力한 輸出商品을 生産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汎用 工作機械類를 年間 3萬台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고 있을 뿐이다.

農業用 機械에 있어서도 韓國은 15마력 換算基準으로 耕耘機, 트랙터 등 年間 7萬3千台的 各種 機械를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데 비해 北韓은 트랙터, 連結農機械 등 3萬2千台 정도로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고 있다.

主要 機械製品 生産能力

(1984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自 動 車	萬 台	33.7	1.8
造 船	萬 屯	400	21
工 作 機 械	萬 台	5	3
農 機 械	萬 台 (15馬力換算基準)	7.3	3.2

3) 化學工業

化學工業도 當初에는 金屬 및 機械工業과 마찬가지로 北韓이 韓國에 비해 優位에 있었으나, 現在는 比較가 안될 만큼 韓國이 絶對的 優位를 점하고 있다. 解放當時 北韓에는 年産 48萬屯 規模의 “興南肥料工

場”을 비롯하여 重要的 化學工場이 있었으나 韓國은 1950年代까지 化學肥料를 全量 外國에서 輸入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韓國은 1959年 “忠州肥料工場”의 建設로 化學肥料 自給의 基盤을 構築하기 시작했고, 1977年 第7 肥料工場까지 建設·稼動되는 등 積極的인 施設投資가 이루어짐으로써 1984年 現在 化學肥料 生産能力은 成分含量 基準으로 140萬屯에 달해 北韓의 70.6萬屯에 비해 그 能力面에서 約 2倍 정도를 凌駕하고 있다.

肥料의 生産構造에 있어서도 韓國은 肥料 生産設備가 尿素肥料 生産을 中心으로 한 高成分 肥料生産 위주인데, 北韓은 成分含量이 낮은 硫安肥料와 磷肥料가 主種을 이루고 있다.

農藥生産은 1984年 韓國이 實量基準으로 17萬餘屯인데 비해 北韓은 2萬餘屯에 不過하고 그 種類 또한 극히 적어 많은 양의 農藥을 日本으로부터 輸入하고 있는 實情이다.

合成樹脂는 1984年 現在 韓國이 年間 約 115萬屯의 生産能力을 保有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9萬屯 水準으로 韓國이 10분의 1 水準에도

主要 化學製品 生産能力

(1984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化 學 肥 料	萬屯 (成分含量基準)	140	70.6
農 藥	〃 (實量基準)	17.4	2
主要合成樹脂	萬屯	115	9.2
板 유 리	萬㎡	6,150	2,322.5
시 멘 트	萬屯	2,429	892

미치지 못하고 生産品의 種類와 質的인 面에서도 韓國과는 比較가 되지 않을 정도로 低級한 水準이다.

주로 建材工業에 이용되는 板유리의 경우에도 韓國은 年産 6,150萬 m²의 生産能力을 保有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의 生産能力은 年産 2,322萬 m²로서 規模面에서 상당한 隔差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生産品의 種類와 質에서도 역시 韓國이 壓倒하고 있다.

南北韓 공히 充分한 資源을 가지고 있는 시멘트는 1984年 現在 韓國이 2,429萬屯의 生産能力을 保有하고 國內建設과 海外建設 現場에 充分한 物量을 供給하고 있다. 北韓 역시 年間 892萬屯을 生産能力을 가지고 自体需要를 充當하고 있으며, 소량이지만 生産量의 一部를 輸出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 輕工業

輕工業은 大部分이 住民들의 日常生活과 密接한 關係를 가진 生活必需品 즉, 消費品을 生産하는 部門이다.

따라서 資本主義 體制에서는 生産業者들이 需要가 많은 輕工業製品 生産에 優先을 두게 되고 當局도 이 部門에 대해 政策的인 重點을 두고 있다.

그러나 商品의 需要供給이 中央計劃機關에서 一方的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住民들의 欲求를 黙殺할 수 있는 北韓에서는 輕工業 自体가 政策的으로 輕視될 수 있는 部門이다.

實際로 北韓은 지금까지 軍需産業 위주의 重工業優先政策에만 沒頭해 왔기 때문에 輕工業部門에 대해서는 極도로 投資를 抑制해 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北韓의 工業化政策은 結果的으로 輕工業을 北韓의 産業중 가장 落後한 部門으로 轉落시켰으며 더우기 이는 生活必須品の 供給不足에 따른 住民들의 不平·不滿이 高潮됨으로써 産業全般에 걸쳐 勞動意慾과 生産性を 低下시켜 經濟成長이 鈍化되는 主要 要因중의 하나가 되고 말았다.

北韓은 이에 따라 1984年度를 이른바 “輕工業革命, 人民奉仕革命”의 해로 規定하고, 輕工業 製品을 增産하는 데 注力하고 있지만, 根本的으로 輕工業 部門에 대한 新投資가 低調한 가운데 思想的 誘引 (Moral Incentive)에만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어서 별다른 成果를 얻지 못하였다.

電子製品의 生産能力만을 比較해 보더라도 韓國은 當初 輸入代替産業으로 시작했으나, 勞動集約的이면서도 同時에 技術集約的이라는 特性 때문에 最近에는 輸出産業으로 크게 脚光을 받을 정도로 急成長하였는바, 1984年 現在 生産能力을 보면 TV受像機는 칼라TV가 540萬台, 黑白TV가 345萬台로서 도합 885萬台이고, 冷蔵庫는 170萬台를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고 있으며 이밖에 通信機器를 비롯한 各種 現代的 電子機器와 商品을 大量 生産하고 있다.

이에 비해 北韓은 1979년에야 黑白TV를 年間 10萬台 정도 生産할 수 있는 “大同江TV 受像機工場”을 完工하였으며, 餘他の TV 組立工場의 能力까지 합해도 年間 24萬台 정도의 生産能力 밖에는 없다.

칼라TV는 部品을 全量 輸入하여 組立하고 있는 實情이고 冷蔵庫 역시 最近에야 冷凍室과 冷蔵室이 갖추어진 冷蔵庫가 生産될 뿐이다.

또한 北韓은 低水準의 通信裝備를 除外한 그밖의 電子製品에 대해서는 全量을 海外輸入에 依存하고 있는데, 最近에 유엔開發計劃(UNDP)의 援助를 얻어 이 部門에 대한 開發을 着手한 것으로 알려졌다.

南北韓의 主要 輕工業製品 生産能力을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主要 輕工業製品 生産能力

(1984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T V 受 像 機	萬台	885	24
冷 藏 庫	萬台	170	1~2
織 維	萬屯	137.7	12.8
織 物	億m ²	51.6	6
신 발	百萬足	401	52.1
時 計	萬個	1,200	10

마. 技術水準

全般的으로 볼 때 韓國은 開放體制에 의한 先進技術과 設備의 導入으로 急速한 技術革新을 이룩하였고, 이를 受用, 土着化시켜 나가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閉鎖體制로 自力更生原則에 의한 自体의 技術開發에만 依存하였기 때문에 技術水準이 極度로 落後되어 있다.

南北韓의 主要 技術水準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産業用 機械部門에 있어서 韓國은 콘크리트믹서, 벽돌製造機 등의 生産技術은 國際水準이고, 高濃度크리머, 淨水機 등은 輸出段階에 있다. 北韓은 汎用 工作機械에 한하여 量産體制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板金部門은 蘇聯, 체코 等地에서 그 技術을 導入하고 있다.

둘째, 農業用 機械分野의 경우 韓國에서는 動力耕耘機 등 各種 農機

械가 大部分 國産化되고 있으며, 動力機械는 97%, 動力噴霧器는 86%의 높은 國産化率을 보이고 있는 비해, 北韓에서는 트랙터 등 連結農機械를 20餘種 生産하고 있으나, 베어링 등 일부 部品은 蘇聯에서 輸入하고 있다.

세째, 韓國은 輸送用 機械分野, 그중에서도 自動車는 乘用車와 小型트럭의 生産技術이 優秀하며, 性能面에서도 단연 北韓을 壓倒하고 있다. 이에 비해 北韓은 大型 工作機械와 採掘機械 등 裝備生産에서 약간 優位에 있다. 그러나 이나마도 베어링, 點火器 등 主要部品은 外國에서 輸入하여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네째, 電氣·電子機械도 韓國이 優位에 있고, 北韓은 發電用 機械部門에서 다소 技術이 蓄積되어 있는 편이다.

5. 輸送·通信

오늘날의 輸送手段은 鐵道를 비롯하여 高速道路, 海運, 航空 등 多樣하게 發展되어 있다. 그 중에서 從來 輸送手段의 核心이었던 鐵道는 輸送手段이 多樣하게 發達된 오늘날에도 貨物輸送에 있어서는 가장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1984年 現在 韓國의 鐵道 總延長은 6,168餘km이며, 이중 電鐵化 區間은 1,020餘km인데 비해, 北韓의 鐵道 總延長은 約 4,473km이며, 이중 61%인 2,719km가 電鐵化 되어 있다.

北韓은 輸送構造上 貨物輸送의 90%, 旅客輸送의 60%를 鐵道가 堪當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發生하는 鐵道輸送의 停滯性을 脫皮하고 輸送의 牽引能力을 提高시키기 위하여 電鐵化에 注力해 온 結果 鐵道の 電鐵化率이 높은 것이다.

1984年 現在 韓國의 道路 總延長은 都市計劃上의 未開通 道路를 除外하고도 5萬 1千km를 上廻하고 있으며 이중 1,421km가 高速道路로 되어 있어 명실공히 韓國 全地域은 1日 生活圈化 되었다.

또한 道路鋪裝率은 46.4%로서 1980년에 비해 1.5倍 以上이 增加되었고, 自動車 保有台數는 94萬 8千台에 이르러 점차 道路輸送의 比重이 커지고 있는 바, 이는 自動車産業의 發展과 所得水準의 增大에 따른 「마이카 붐」의 急速한 擴大에 따른 것이다. 1984年 現在 韓國의 自動車輸送 比重은 旅客輸送面에서 鐵道の 21倍, 貨物輸送面에서는 2.5倍 以上으로 모든 輸送手段 중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北韓은 道路 總延長이 2萬 2千km이고, 高速道路는 平壤 ~ 元山間 172km, 平壤 ~ 南浦間 53km, 平壤 ~ 順安間 15km를 합해 모두 240km에 不過한 實情이다.

北韓의 自動車 運行台數는 農村과 炭·鑛山에서 保有하고 있는 貨物 自動車와 버스를 중심으로 한 21萬台 정도인데 이것마저도 平壤 등 大都市와 低地帶인 西部地域 一帶에 集中되고 있다.

海運輸送은 韓國의 경우, 對外貿易의 增大과 더불어 그 重要性이 날로 增大되어 1984年 現在 荷役能力은 期間중 포항 동항부두를 비롯한 仁川 第8埠頭, 蔚山埠頭 등의 建設,擴張으로 前年 9,600萬屯에서 11,200萬屯으로 크게 늘어났고, 外航船 保有屯數는 730萬3千屯에 이르렀으며 自國船積取率도 46.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對外貿易에 消極的이었는데다 東西海岸이 分離되어 있는 탓으로 海運部門이 극히 落後되어 있다.

最近에 이르러서는 北韓은 對外貿易의 增大政策을 追求하면서 海運과 港灣施設을 整備, 補強코저 努力하고 있는데 그 實例로는 南浦, 海州와 松林港을 對外貿易港으로 擴張했고, 外航船 建造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1984年 現在 北韓의 荷役能力은 3,290萬屯이고, 自國船積取率은 21 % 水準에 不過하며 外航船 保有屯數도 70萬屯 水準으로 海運部門의 落後性을 보여 주고 있다.

航空輸送에 있어 韓國은 外航船만도 18個國, 34個路線에 102台의 航空機가 運航을 하고 있고, 그 伸張勢가 날로 增大되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輸送 · 通信 現況

(1984年 現在)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鐵 道 總 延 長	km	6,168	4,473
(電 鐵 化 區 間)	"	(1,020)	(2,719)
客 車	輛	2,114	800
貨 車	"	16,248	21,500
地 下 鐵	km	62	30.5
道 路 總 延 長	"	51,003	22,000
(高 速 道 路 區 間)	"	(1,421)	(240)
自 動 車 保 有 台 數	萬 台	94.8	21
港 灣 荷 役 能 力	百 萬 屯	112	32.9
外 航 船 保 有 屯 數	萬 屯(G/T)	730.3	70
自 國 船 積 取 率	%	46.3	21
航 空 機 保 有 台 數	台	102	15
國 際 航 空 路 線	路 線(個 國)	34(18)	3(2)
郵 便 物 接 受 量	百 萬 通	1,199	-
電 話 加 入 者 數	萬 回 線	559	30

不定期的인 國內路線 以外에 週 1~2 回의 平壤~北京, 平壤~모스크바, 平壤~하바로프스크 등 2 個國, 3 個都市의 國際路線 밖에는 運航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航空機도 空軍에서 運營하는 舊型機 15 台 정도를 保有하고 있을 뿐이다.

통신部門에 있어서도 南北韓은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

1984 年중 韓國의 郵便物의 接受量은 1,199 百萬通에 달하고 있으나 北韓은 當局의 郵便檢閱과 統制로 인해 住民들간의 郵便交流는 많은 制約을 받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通信施設을 보면 韓國은 全國의 電話加入者數가 559 萬回線을 上廻하고 있어 家口當 電話普及率이 70% 水準을 넘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約 30 萬回線 정도가 架設되어 있을 뿐이고 그것도 平壤을 비롯한 主要 都市 및 軍事地域의 3~4 萬 回線을 除外하고는 大部分이 手動式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 對外去來

가. 貿易規模

韓國은 1960 年代 初부터 國內資本의 不足을 外資로 充當하고 狹小한 國內市場의 制約을 海外市場으로 補完하는 이른바 對外指向의 開發戰略을 追求해 왔다.

이와같은 開發戰略의 推進은 貧弱한 賦存資源의 與件하에서 豊富한 勞動力을 生産資源化하여 急速한 經濟發展을 圖謀키 위한 韓國 經濟의 不可避한 選擇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韓國은 이러한 對外指向의 開發戰略의 成功的인 推進으로 높은 投資率의 持續과 貿易規模의 急速

한 擴大를 이룩하였으며 이는 韓國經濟가 高度成長을 이룩하는데 原動力이 되었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北韓은 自力更生의 旗幟아래 閉鎖的인 오타르키 體制를 維持해 왔기 때문에 對外去來에 대해서는 消極的일 수밖에 없었다.

北韓은 對外去來를 어디까지나 自給自足形 經濟에 從屬된 하나의 補手段으로 看做, 活用하여 왔을 뿐이었다.

北韓의 對外貿易은 “國家管理”에 의한 計劃貿易으로 實施되고 있으며, 貿易部 傘下의 國營商社와 協同貿易商社 등을 통해 對外貿易이 이루어지고 있다.

交易對象國에 있어서도 經濟를 政治目的과 結付시켜 60年代에는 共產圈 諸國과의 交易比重이 90% 以上을 占하고, 第3世界의 非同盟圈 諸國이 그 다음이었으며, 西方圈 國家들과의 貿易은 별로 重要視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와서 北韓의 貿易政策은 相當한 轉換이 이루어졌다.

外資導入에 대한 關心이 高潮되는 가운데, 西方諸國과의 貿易擴大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北韓의 貿易政策 變化는 6個年 經濟計劃 期間중 技術革命을 最高의 課業으로 내세웠는데 이를 위해서는 最新 機械類의 輸入增大가 不可避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蘇聯의 技術水準이 西方圈에 비해 뒤지고, 蘇聯에 대한 貿易赤字가 相當水準에 達함으로써 그 償還에 問題가 發生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하여, 1973年 石油波動 以來 西方 先進諸國이 貿易市場 擴大 對策의 一環으로 北韓에 대한 信用供與를 시작한 것도 그 理由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急激한 對西方 交易增大는 對外負債의 累増과 償還不能이라는 深刻한 事態를 惹起시킴으로써 對西方 交易은 1975年以後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요컨대, 1970~79年 期間중에 北韓의 年平均 輸出 및 輸入伸張率이 13.6%와 11.4%로 韓國의 37.5%와 28.7%와 比較해 볼 때 折半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80年代에는 오히려 貿易總額이 漸次 減少하는 傾向을 나타내 주고 있는 바, 北韓 對外貿易의 限界를 露呈시키고 있는 것이다.

1984年中 韓國은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의 景氣上昇勢의 持續에 힘입어 輸出이 好調를 보인데다가 輸入은 原油 등 國際原資材 價格의 安定으로 낮은 增加勢를 나타냄으로써 赤字幅이 크게 減少하였다.

期間중 韓國의 貿易實績을 보면 通關基準으로 輸出 292.4億弗, 輸入

南北韓 輸出入 推移

(通關基準 億弗)

區分 年度	韓 國			北 韓		
	輸出額	輸入額	貿易額	輸出額	輸入額	貿易額
1970	8.4	19.8	28.2	3.7	4.4	8.1
1975	50.8	72.7	123.5	8.1	10.9	19.0
1980	175.0	222.9	397.9	14.4	17.4	31.8
1981	212.5	261.3	473.8	13.0	16.0	29.0
1982	218.5	242.5	461.0	15.0	18.0	33.0
1983	244.4	261.9	506.5	13.8	15.5	29.3
1984	292.4	306.3	598.7	13.4	13.9	27.3

306.3億弗로 貿易總額이 598.7億弗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北韓은 1984年 1月 最高人民會議를 통해 貿易伸張을 위하여 共產諸國은 물론 自由圈 國家들과도 交易을 擴大, 實施하겠다고 公式的으로 表明하였음에도 不拘하고 輸出은 13.4億弗, 輸入은 13.9億弗로 貿易總額이 韓國의 4.6%인 27.3億弗 水準에 그침으로써 지난해 보다도 오히려 減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點을 勘案할 때 그 隔差는 앞으로 더욱 擴大될 것으로 豫想된다.

한편, 1984年 現在 國民總生産에 대한 貿易依存度を 살펴보면 韓國은 輸出依存도가 36.0%, 輸入依存도는 37.8%로, 貿易依存도는 73.8%에 이르고 있으며, 北韓은 輸出依存도가 9.1%, 輸入依存도 9.5%로 貿易依存도는 18.6%로 나타나고 있다. 韓國의 貿易依存도가 이처럼 높은 것은 對外指向的 開發戰略이 물고 온 不可避한 歸結이긴 하지만 한 나라의 經濟가 世界景氣 變動에 크게 影響을 받는다는 면에서 昨今과 같이 世界景氣가 沈滯에 빠져있고, 또한 保護貿易의 障壁이 더 높아질수록 長期的으로 보아 적지않은 影響을 받게되는 脆弱性을 지니고 있다.

나. 貿易 構造

輸出商品의 構造를 살펴보면, 韓國은 經濟開發計劃이 着手되기 以前인 1961年까지만 하여도 工產品 輸出은 18%에 不過하고 1次產品이 82%를 차지하였다.

그후 工業化가 進陟됨에 따라 工產品 比重이 크게 늘어나 1984년에는 工產品이 95%를 차지하게 되었고 1次產品은 5%에 不過하다.

輸出商品의 産業別 構成은 農產物 1.7%, 水產物 3.0%, 鑛山物 0.3%로 나머지 95.0%가 工產品이다. 그리고 이 工產品의 大宗은 纖維製

品, 船舶, 電子製品, 신발類, 機械類, 鐵鋼製品 등이다.

北韓의 輸出은 當初 鐵鑛石, 非鐵金屬 등 주로 1次產品이었으나, 1960年代 半製品 輸出의 擴大過程을 거친 후, 70年代에 들어와서는 完製品 輸出의 擴大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輸出構造는 여전히 落後되어 있는데 이와같은 事實은 1984年度 北韓의 輸出商品 構造가 工產品 61.3%, 農水産物 13.2%, 鑛山物 25.5%라는 事實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蘇聯과 日本에 대한 北韓의 主要 輸出商品이 金屬 및 鐵鑛製品과 各種 原鑛石, 마그네샤크링카, 石炭, 시멘트 등 鑛物資源이 大宗을 이루고 그의 農水産物, 纖維類가 一部였다는 事實을 보아도 능히 알 수 있다.

輸入에 있어서는 南北韓 公히 賦存資源이 絶對적으로 不足한 形편이므로 工業化에 必要한 原資材 및 에너지의 輸入依存도가 높은 것이 特徵이다.

그러나 輸入構造를 살펴보면 經濟力과 産業構造의 差異로 南北韓이 서로 對照를 이루고 있다.

韓國은 1984년에 資本財 33.8%를 除外하고는 거의 大部分이 輸出 및 內需用 原資材와 燃料이다. 이에 대해 北韓의 경우에는 機械設備 등의 資本財와 그의 電氣製品 및 日用雜貨, 化學製品, 金屬製品 등의 完製品이 約 57% 水準을 차지하고 있으며 農産物과 鑛山物은 各各 6.4%, 36.6%의 輸入構造를 나타내고 있다.

以上과 같은 輸出入商品構造를 比較해 볼 때 韓國은 原資材를 輸入하여 이를 加工, 輸出하는 貿易形態를 취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은 相對적으로 原資材의 輸出比重과 完製品の 輸入比重이 높은 後進的인 輸出入商品構造를 보여주고 있다.

地域別 貿易構造를 보면, 韓國은 그동안 貿易規模의 擴大와 貿易市

場의 深化를 위한 積極的인 市場多邊化 政策을 推進함으로써 1984年 現在 世界의 170餘個 國家와 交易을 行하고 있다.

이와함께 從來 美國과 日本에 偏重되었던 市場構造도 相當히 改善되어 今에는 美國과 日本의 市場占有率이 各各 29.2%, 20.3%로서 1979年까지만에도 兩國에 對해 公히 折半水準 以上을 차지하던 輸出入 比重이 많이 減少되고 있는 趨勢를 보여주고 있다.

北韓은 現在 約 60餘個 國家와 交易關係를 가지고 있는데 不過하며, 貿易總額에 對한 對象地域別 比重은 1963年까지만 해도 共產圈 諸國이 90% 以上을 차지했으나, 漸次 減少되었으며 특히 70年代에 들어와 北韓의 對西方圈 接近이 強化됨에 따라 對西方圈 貿易增加率이 크게 높아져 1974년에는 이 地域에 對한 貿易比重이 53.6%로 增加해, 한때나마 對共產圈 貿易比重을 凌駕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對西方圈 貿易의 擴大는 主로 技術革新을 위한 資本財 輸入의 擴大에 의해 主導됨에 따라 結果的으로 外債累增의 問題를 惹起시키는 同時에, 外換不足으로 인한 外債償還 不能事態를 發生시키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1975년부터는 對西方 交易이 急激히 減少하기 시작하였고 다시 對共產圈 交易의 比重이 높아졌다.

北韓의 貿易은 蘇聯, 中共, 日本에 偏重現象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3個國에 對한 貿易依存度는 1984年 現在 各各 31.1%, 18.3%, 14.6%이며, 이로 볼 때 北韓의 貿易은 이들 세나라에 64%를 依存함으로써 交易의 多邊化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7. 住民生活水準

오늘날 自由主義 國家에서는 民主福祉社會의 建設을 目標로 인플레이

없는 安定的 成長과 雇傭機會의 擴大를 追求하는 한편, 租稅政策과 社會開發 政策으로 階層間的 富의 公正分配를 實現시키고 있고, 不斷한 技術革新으로 勞動生産性を 높이고 能力差等制를 實施, 合理的인 賃金 引上을 誘導하고 있다.

그러나 共產主義 國家들에 있어서는 社會經濟体制의 矛盾性과 輕工業 部門의 沈滯로 지난 1950年代 以後 自由主義國家들보다 國民生活 水準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傾向은 北韓의 境遇 더욱 顯著하다.

北韓에 있어서는 國民總生産에 대한 中央豫算 規模는 75% 水準을 上廻하고 있고, 地方豫算 規模도 12%를 占하고 있음으로써 公經濟의 比重이 90% 内外를 차지하고 있고, 私經濟는 10% 정도에 不過한 바 이는 蘇聯이나 東歐諸國의 財政規模가 國民總生産의 50~60%인 것에 비해 公經濟의 比重이 훨씬 높은 것으로서 私經濟部門이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韓國과는 전혀 다르다.

이와같은 南北韓의 異質的 經濟体制下에서 住民의 實質生活 水準을 比較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다 극히 斷片的으로 發表되고 있는 價格構造, 消費樣相 등에 관한 北韓의 統計資料조차도 虛偽的으로 操作되고 있어 比較에 無理가 많다.

따라서 여기서는 南北韓 1人當 GNP에서 再生産을 위해 必要한 投資의 負擔과 軍事費의 支出額을 差減한 殘餘分을 實質的으로 住民의 厚生을 위해 消費되어진 1人當 消費支出 規模로 定義하고 南北韓의 實質的인 生活水準을 比較·檢討하고자 한다.

앞에서 이미 比較한 바와같이 1984年度 韓國의 1人當 GNP는 1,999弗이며 北韓은 762弗로서 韓國이 北韓보다 2.6倍나 높은 水準에 있다.

한편, 國民總生産에 대한 軍事費 負擔을 比較하여 보면 韓國은 5.4

%인데 비해, 北韓은 23.3%이며 經濟의 擴大 再生産을 위한 南北韓의 投資率은 韓國이 31.0%, 北韓이 約 30% 水準으로 모두 높은 投資率을 維持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定義한 바와같이 1人當 國民總生産에서 1人當 投資負擔額과 軍事費 負擔額을 差減한 것을 1人當 消費額으로 본다면 韓國은 民間消費支出의 比率이 63.6%를 占하고 있으므로 實質的인 消費水準이 1,271弗로 나타나는데 비해 北韓은 住民의 消費比率이 約 46.5%로서 356弗 水準에 不過한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南北韓間의 實質的인 消費水準은 約 3.6 : 1의 顯著한 隔差를 보여주고 있는데 南韓과 北韓의 消費水準은 各已 住民生活水準을 나타내는 代變數(Proxy Variable)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같은 消費水準의 格差는 곧 住民生活水準의 隔差를 나타내는 格이라 하겠다.

南北韓의 1人當 消費支出

(單位：弗, %)

年 度	韓 國		北 韓	
	增 加 率		增 加 率	
1980	993	- 3.9	353	12.8
1981	1,133	14.1	347	- 1.7
1982	1,145	1.1	340	- 2.0
1983	1,200	4.8	356	4.5
1984	1,271	5.9	356	0.0

V. 南北韓 經濟成長 展望

1. 南北韓 經濟의 強弱點

가. 韓 國

賦存資源이 不足하고 資本과 技術이 貧困한데다가 人口는 過多한 그야말로 不利한 開發條件下에서 韓國의 經濟發展을 爲한 基本的인 開發戰略은 한마디로 對外指向的 成長戰略이었다.

慢性的 失業, 絶對的 貧困, 國際競爭力의 脆弱性, 膨脹하는 人口와 國家安保에 必要한 資源調達과 같은 根本的인 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는 오로지 成長만이 擇할 수 있는 길이었다.

60年代 以後 韓國이 推進한 經濟政策과 推進過程, 經濟成長 成果 등을 綜合 評價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次産業의 成長, 特히 2次計劃 以後의 重化學工業 開發로 産業構造가 크게 改善되었으며 이같은 産業構造의 改善은 劃期的인 輸出增大의 基盤이 되었다.

둘째, 開放體制下에서의 對外指向的 成長을 追求하여 國際經濟協力의 增大와 貿易伸張을 期하여 왔는 바, 이는 1964年 韓·日國交의 正常化, 外資導入의 積極推進 등으로 投資財源을 調達하였고 貿易自由化의 擴大와 世界經濟의 潮流에 順應하면서 國際競爭力을 強化해 온 結果이다.

셋째, 自立經濟의 基盤을 構築하였다. 韓國經濟는 6·25動亂 以後 外國援助에 依存하였으나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인 推進으로 外援을

일찌기 止揚하게 되었고, 以後 外資導入에 依存하였으나 점차 外資의 依存率도 減少되어 自立的 經濟成長의 基盤을 닦아 成長과 發展의 潛在能力을 鞏固化하였다.

이와같이 韓國의 開發戰略은 國民經濟의 成長潛在力을 向上시켜 開放體制에 依한 對外指向的인 工業化에 成功함으로써 自然資源의 不足과 開發初期에 있어서의 投資財源의 不足을 克服하고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實現시킨 것이다.

工業化 過程에서는 輕工業에서 重工業, 重工業에서 重化學工業으로 段階的 發展을 追求하였고 對內外的으로 安定的 成長基盤을 構築하였다.

그러나 韓國經濟는 外資依存과 國際收支의 慢性的 赤字라는 弱點을 갖고 있다. 그동안 大幅的인 輸出伸張으로 1977년에는 그 赤字를 어느 정도 補填할 수 있을 정도로 好轉되었으나 第2次 「오일 쇼크」로 因한 世界的인 景氣의 下落과 保護貿易主義 傾向, 資源 「내셔널리즘」의 대두 등으로 赤字는 繼續되고 있으며 外債負擔은 加重되고 있다.

最近 韓國은 輸出商品의 多樣化, 高級化 및 輸出地域의 多邊化로 世界的인 不景氣 및 諸般 貿易障壁에도 不拘하고 貿易赤字의 幅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나. 北 韓

北韓은 韓國에 比하여 地下資源이 相對的으로 豊富한 점에서 強點을 갖고 있다. 또한 이른바 “自力更生의 原則”아래 閉鎖體制를 固守함으로써 韓國보다 國際經濟의 變動에 比較的 安定的이라는 점도 強點으로 指摘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도 窮極의으로는 汎世界的 次元에서 볼 때, 그들의 內需 部門의 基盤이 韓國에 비해 적다 할지라도 資源이 絶對的으로 不足한 實情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北韓이 對外協力과 貿易을 소홀히 하였음은 經濟開發과 成長에서 커다란 脆弱點이 되어 왔다. 結局 北韓도 對外貿易의 必要性이 있고 開放化의 要求가 切實한 것이라 하겠다.

또 北韓은 重工業 優先政策을 追求함으로써 特殊産業 部門의 畸形的 發展을 어느 정도 이룩할 수 있었으나 産業全般의 發展과는 有機的 關係를 맺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制約을 받고 있다.

이밖에 北韓은 經濟管理의 硬直化, 細分化에 따르는 “機關本位主義”와 “官僚主義”가 蔓延되어 있고 生産活動에 있어서도 私的 所有와 利潤動機를 無視한 채 지나치게 思想的 誘引에만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生産性이 低下되고 있다는 점이 對內經濟의 深刻한 問題點으로 指摘된다.

北韓은 1958年 農業의 集團化 및 商工業의 國公有化가 完了된 以後 住民들의 私的 所有를 否定하여 왔다. 이에 따라 住民들은 國公有 財產에 대한 所有意識이 缺如되어 있어 生産活動에 대한 責任感이 低下되고 있으며 原資材를 浪費하고 流用하는 經濟的 非能率까지 빚어내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北韓當局은 이와같은 現象이 根本的으로 私的 所有의 否定과 利潤動機의 無視에서 招來되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速度戰”, “3大革命 붉은旗 爭取運動” 등 各種 勞力競爭運動을 展開하는 등 減退된 生産意慾를 鼓吹시키기 위해 단지 住民들의 競爭心을 誘發시키는 思想的 誘引만을 強調하고 있다.

2. 展望과 結論

가. 對內外的 經濟環境

韓國經濟가 內外與件의 激甚한 變動에 直面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먼저 對外的 經濟環境을 살펴보면, 가장 特徵的인 現象으로서 過去 어느 때보다도 技術革新의 速度가 빠르다는 點을 指摘할 수 있다.

지난 1, 2次 石油波動 以後 더욱 急速한 速度로 進展되고 있는 技術의 變化는 人力, 에너지 및 資源을 節約시키는 한편 經濟水準이 相異한 國家間的 國際分業體制를 크게 變貌시킬 것으로 豫想된다.

즉, 先進國의 比較優位는 漸次 知識, 研究, 資本集約的 情報産業, 宇宙産業, 生命工學 등 尖端産業 部門으로 移行될 可能性이 큰 反面에 韓國과 같은 新興工業國은 技術, 技能集約的인 組立加工産業, 重化學工業이 比較優位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短期的으로 보면, 世界經濟는 需要不足으로 向後 10餘年間은 低成長의 時代를 맞이할 可能性이 크다. 이에 따라 對外依存도가 높은 韓國은 國際貿易의 萎縮으로 말미암아 持續的인 經濟成長에 比較的 큰 影響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이에 비하여 閉鎖體制를 固守하여 온 北韓의 境遇에는 世界經濟의 萎縮에 比較的 影響을 덜 받을 것으로 豫想되나 現在의 慢性的인 對內的 經濟沈滯를 打開하기 위하여는 開放化의 摸索이 不可避한 實情에 있기 때문에 開放體制로의 轉換에 있어서는 그 負擔이 더욱 加重되는 結果가 될 것이다.

한편, 對內的인 經濟環境을 보면, 韓國은 1960年, 1970年代에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이룩하여 成長潛在力量은 顯著히 增大되었으나, 大企

業을 中心으로 한 偏重成長으로 인하여 變化에 대한 適應力이 比較的 높은 中小企業과의 均衡的인 發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實物經濟의 成長에 비하여 金融產業이 그 規模에 있어서나 經營技法 面에서 뒤떨어져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韓國은 앞으로 變化에 대하여 彈力的인 中小企業을 보다 積極的으로 育成시키는 한편, 政府役割의 縮小와 競爭體制를 導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第2의 跳躍”이 外債의 輕減과 內資動員의 極大化를 통해서만이 可能하다는 점을 勘案할 때 健全한 金融市場의 育成도 時急한 課題로 登場할 것이다.

北韓의 境遇에는 過重한 軍事費 負擔으로 開發資源이 蠶食되고 있고 自力更生의 原則, 즉 閉鎖體制를 固守함으로 말미암아 自然資源의 制約과 資本不足 및 技術의 落後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우기 物的 誘引(Material Incentive)의 缺如로 北韓住民의 經濟意志가 低下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같은 北韓의 對內的 經濟與件이 이미 限界에 逢著해 있음을 勘案한다면, 北韓이 經濟的 落後性을 면키 위해 選擇해야 할 길은 閉鎖社會의 門戶를 開放해야만 한다는 점으로 歸結된다.

換言하면 北韓의 開放化의 必要性은 對內的인 經濟成長의 限界로 인하여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實際로 北韓은 1984年 期間중 對外經濟 部門의 擴大 強化를 위한 一聯의 措置들을 講究하여 왔다.

즉 最高人民會議에서의 對外經濟協力 擴大方針 採擇, 金日成의 蘇聯 및 東歐巡訪, 合營法의 發表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開放體制로의 轉換은 窮極的으로 閉鎖社會의 門戶를 開放해야 하는 政治的 決斷이 뒤따르기 때문에 執權層이 이를 實現하는 데는 많

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나. 韓國 經濟社會 發展 展望

韓國은 70年代부터 重點的으로 開發하기 시작한 重化學工業의 急速한 成長이 이루어짐에 따라 機械, 金屬, 化學, 造船, 電子工業 등의 重要 基幹産業이 成長主導 産業으로 登場하게 되었다.

이들의 開發着手는 北韓보다 늦기는 하였으나 成長潛在力量이 顯著하게 컸기 때문에 現在 大部分의 産業部門에서 生産能力面이나 生産量 및 그 品質에서 優位를 確保하고 있다. 앞으로 韓國은 더 나은 投資與件의 造成과 産業間의 關聯效果를 提高시키기 위하여 社會間接資本部門의 投資를 더욱 늘려나갈 것이며, 특히 生活水準의 向上에 따른 生活環境과 關聯된 社會開發 및 發展에 대한 投資도 크게 增大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地域間의 均等한 發展과 國土空間의 效率的인 活用을 위한 巨視的이고 綜合的인 投資가 大幅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高等教育 機會의 增大, 失業의 解消와 醫療保險을 비롯한 諸保險 등 社會福祉政策이 더욱 활발하게 推進될 것이다.

80年代 韓國經濟의 모습은 5次計劃이 마무리되는 1986年の 國民總生産은 9百億弗에 이르고, 1人當 國民總生産은 2,100~2,200弗의 水準으로 늘어남과 同時에 就業人口도 1千6百餘萬名으로 늘어나 失業率은 1980年の 5.2%에서 4% 水準으로 改善될 것으로 展望된다.

한편, 國民生活도 向上되어 住宅普及率은 78%, 上水道普及率은 70%로 높아지고 醫療保險 受惠率은 66%로 擴大되는 한편, 醫師 1人當 人口數는 1980年の 1,485名에서 1,300名 水準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大學門戶의 擴大에 따라 大學就學率도 높아져서 1980年の 16%에서 1986년에는 2배가 늘어난 31%로 擴大되고 人口 100人當 電話普及率도 7台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19台로 늘어날 것이다.

對外貿易의 伸張에 따른 物動量의 增加에 對處할 수 있도록 釜山·仁川 등 主要 港灣施設을 擴充하여 港灣荷役能力을 1億 3千萬屯으로 增加시키고 金浦, 金海, 濟州空航을 擴張하여 國內旅客의 輸送能力을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水資源의 效率的 開發을 위하여 忠州댐, 陝川댐, 洛東江河口堰을 計劃期間중에 完工하고 住岩댐을 着工할 것이며, 洪水의 事前豫防을 위하여 河川 810km를 改造할 것이다.

이러한 努力의 結集으로 80年代 “第2의 跳躍”을 達成하고 第5共和國의 基本理念인 民主·正義·福祉를 具現해 나갈 것으로 展望된다.

다. 北韓 經濟体制의 變化

北韓은 除限된 資源, 小規模의 經濟單位에도 不拘하고 重工業 優先政策을 推進하여 資源 浪費가 많았고 莫大한 軍事費 負擔과 閉鎖的인 自給 經濟体制를 固守하였기 때문에 經濟開發이 失敗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앞으로 北韓은 經濟成長의 落後性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閉鎖体制로부터 開放体制로 그들의 体制를 轉換할 수밖에 없는 實情인데, 그 까닭은 自然資源의 制約과 資本不足 및 技術의 落後性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根本的으로 北韓体制의 原動力은 政治的 “이데올로기”에 있기 때문에 經濟体制와 經濟政策은 그들 權力集團의 目的을 遂行하기 위

하여 運營될 뿐만 아니라 軍事力 自体도 이제껏 그들의 政治路線을 保衛하기 위하여 動員되어 왔기 때문에 政治的인 見地에서 본다면 体制의 修正 내지 變化가 있더라도 北韓의 經濟体制과 政策의 基本方向이 短期的으로 急旋回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東歐諸國의 改革이 항상 蘇聯의 反應을 意識하면서 행하여 졌다는 事例에서 알 수 있듯이 北韓이 蘇聯과의 政治, 經濟的 關係를 根本的으로 變化시켜야 하는 어려운 負擔도 甘受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既存 權力集團의 死亡 및 權力陪開 등으로 인한 權力体制의 再編成으로 昨今 대두하고 있는 「테크노크라트」화가 있을 때에는 “變化促進要因”이 “變化抑制要因” 보다 強하게 作用하여 南北對峙의 狀況的 認識의 範圍內에서 調整期, 緩衝期라는 名目하에 部分的인 合理化, 實用化 改革이 漸進的으로 이루어지리라고 豫想된다.

最近에 와서 北韓의 閣僚級 代表團이 대거 中共의 經濟特別地區를 視察하고 있고 先進技術 및 設備導入을 위해 合營法을 發表하는 등 西方諸國과의 合作投資 誘致를 조심스럽게 企圖하고 있는 것은 体制, 특히 對外經濟協力에 대한 基本 見解에 變化가 일고 있음을 立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韓國은 民主統一 力量과 社會正義를 具現하기 위한 政治力量을 繼續 培養해 나가야 할 것이며, 閉鎖的이고 異端者的인 北韓이라 할지라도 같은 民族으로서의 한 成員으로 受容할 수 있는 態勢를 整備해 나가야 할 것이다

南北韓 經濟現況 比較

1985年 12月 20日 印 刷

1986年 1月 10日 發 行

發行處 國 土 統 一 院

印刷處 輝 文 印 刷 (株)

〈非賣品〉

